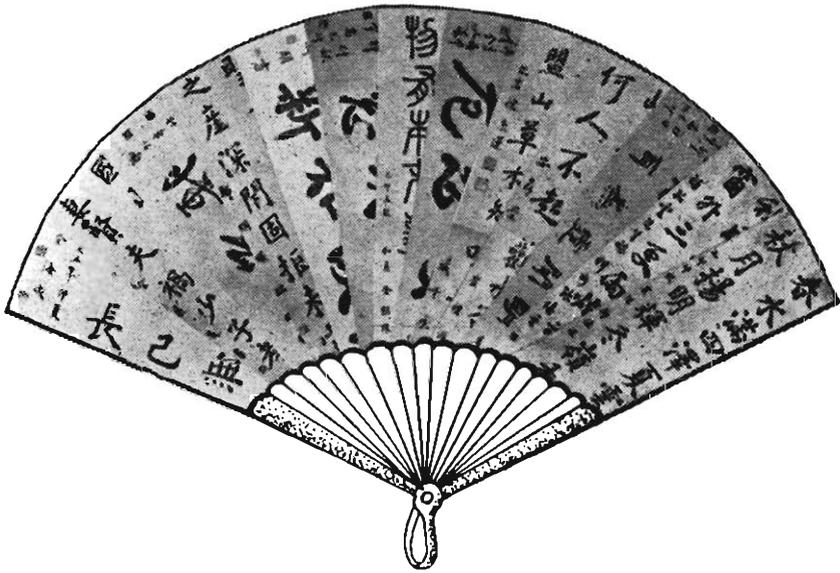


速記界

第 16 號



社團 法人 大韓速記協會

1	〈卷頭言〉 乙卯年을 보내면서	會長 金龍泰
5	受任 한해를 回顧하며	理事長 崔錫模
7	○視察記：外國速記界를 돌아보고	金鎮基
15	■特輯·座談會 韓國速記界發達の 根源을 되새기며	創案者
31	《研究》 英語變異音이 英文速記士에 미치는 影響	盧英民
35	어느날의 記憶祭	金仙玉
39	◆用語解說	研究委員會
40	□會務報告	總務部
6	速記에 관한 相談을 받습니다	
34	第9回 速記士資格檢定試驗 合格者名單	
34	體育：觀覽記	
38	速記料金案内	
41	編輯後記	



乙卯年을 보내면서

會 長 金 龍 泰

또 한해의 終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年初의 2·12 國民投票로부터 始作해서 印支事態, 不況과 物價昂騰 緊急措置 9號, 總力安保態勢의 構築등으로 이어진 이 한 해 역시 政治的으로나 經濟的으로나 社會的으로 술한 激動의 連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政治的으로는 國論統一이요, 經濟的으로는 새마을 事業이요, 社會的으로는 社會惡과 不條理除去라는 힘겨운 事業을 과감하게 實踐해 왔습니다.

오늘날 祖國이 當面한 現實은 人類最大의 悲劇의 世紀라고도 하는 20世紀의 마지막 고비를 넘기는 苦難外에도 北傀의 南侵挑發을 분쇄하며 累千年的 停滯와 後進性을 脫皮하여 繁榮의 터전을 닦아나가야 할 重大한 고비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現實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냉철한 使命意識과 奮發을 促求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時代의 使命을 다하기 위해 나라의 안팎에서 밀어닥치는 挑戰과 試鍊을 겨레의 勇氣와 슬기로 克服하는데 있어 그 힘과 熱誠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國家民族의 當面課業遂行에 盡力할 것이며 難關을 뚫고 나가는 建設의 隊列에 앞장설 것을 주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社會에 潛在한 많은 難題가 결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基本的 認識의 출발없이 그 解消의 길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잘 사는 나라에 豐饒의 悲劇이 판을 치고 가난한 나라에는 궁핍과 齷齪의 悲劇이 휩쓸고 있는 世界의 現實을 우리는 더욱 냉철히 直視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否定보다도 肯定을 그리고 파괴보다 建設을 앞세우고 悲觀과 絕望대신에 樂觀과 希望을 尊重하는 까닭도 거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歷史의 使命은 民族의 團結과 國力의 總和 그리고 生存과 繁榮을 위한 努力으로 集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至上의 課業完遂를 위하여 國家社會에 끊임없이 繼起하는 모든 事象을 보다 巨視의이며 根源的으로 보고 말은바 所任에 충실한 決意를 새로이 해야 할 것입니다.

뜻 깊은 乙卯年을 보내면서 速記人 여러분과 여러분의 家庭에 萬福이 깃들시기를 祈願합니다.

受任한해를 回顧하며

理事長 崔 錫 模

도로변에 자지러지던 「코스모스」도 시들해 지고 한강변의 바람은 유달리 거세고 차가운 것은 四季의 마지막 장이 열림으로써 더욱 피부에 스미는가 봅니다.



생각하던 엄격결에 맡은 會務 1年是 짧고도 긴 歲月이었나 봅니다.

지난날을 反省하고 來日을 設計해서 보다 나은 未來로의 前進를 위하여 지난 1年을 回顧하는 마음을 조금 펼쳐 보고자 합니다.

우선 協會의 今年度 重要事業計劃이었던 것을 하나하나 살펴볼까 합니다.

放學을 利用한 速記講習

첫째로 放學을 利用한 速記講習입니다. 대체로 滿足할만한 成果를 거두었다고 自負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問題點으로 대두된 것 중에 하나는 汝矣島講事堂을 利用한 速記講習의 接受 및 講義가 交通事情 및 露舍出入關係等の 諸般問題로 인하여 앞으로의 研究課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明年부터는 協會歲收에도 큰 영향을 주리라 생각됩니다.

全國速記士 技能檢定試驗

둘째로는 全國速記士 技能檢定試驗입니

다. 春秋 2회에 걸쳐 施行하였습니다. 今年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國會速記士養成所 및 東邦速記學院의 在學生과 卒業生들만 應試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脫皮하여 그야말로 全國的인 호응을 받게끔 되기 위해서는 우리 速記人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速記學術研究

세째는 速記學術研究입니다. 同研究委員들의 勞苦로 前年水準을 維持해 준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速記分野의 發展策을 研究하는데도 力點을 두어야 되겠습니다.

會誌「速記界」

네째 協會의 일꾼인 速記界問題입니다. 今年는 2회로 그쳤습니다. 對外에 대한 우리의 唯一한 PR誌로서 무게있게 다루어야 될 協會의 가장 친근한 벗 「速記界」가 原稿蒐集過程에서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原稿蒐集에 많은 時間이 虛費되고 있는 까닭입니다. 會員 여러분의 自發的인 自願的인 協助이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體育大會

다섯째는 會員間的 人和團結과 體位向上을 위한 體育大會입니다. 이제 完全히

기들이 잡히어 어디에 내어 놓아도 손색이 없는 體育大會로 發展되게 힘써 주신 여러 會員의 勞苦에 謝意를 표합니다.

速記競技大會

여섯째 速記士의 速記術向上 고취를 위한 速記競技大會 입니다.

이는 여러가지 事情으로 今年는 實施하지 않고 延期하기로 理事會에서 決定되었음을 紙上을 通하여 會員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今年度 事業計劃以外的 事業으로는 時宜에 맞추어 舉行한 全國速記人 總力安保 蹴起大會(5.18 泰陵選手村)는 우리 速記人의 國家安保를 위한 隊列에 欣快히 參與할 것을 決議하였읍니다.

다음으로는 市立婦女事業館(金永春會員)과 昌德女子高等學校(金福童會員)의 協會에서 맡은 速記講義는 앞으로 速記人口의 底邊擴大에 하나의 디딤돌 役割을 하리라 믿으며 이에 獻身的으로 參與해 준 두會員의 그간의 勞苦에 致賀를 드립니다.

이것만은 꼭 實現을 보았으면 하고 기대했던 것입니디라는 院內會員을 위한 手當引上問題와 院外會員을 위한 速記需要 開發問題等은 여러 複合的인 要因에 의하

여 손도 대보지 못하고 이 해를 넘기게 되었읍니다.

항상 그늘에서 말없이 묵묵히 일해가는 우리 速記士들의 士氣仰揚策으로서 이 문제만큼은 언젠가 따뜻한 햇볕이 쬐여 줄 것을 機會있을 때마다 上部에 報告하여 기어리 成就시켜야 될 줄로 믿읍니다.

또한 速記無料講習의 地方, 大都市普及 問題도 地方과의 유대관계 미흡으로 實施를 보지 못한 아쉬움을 남긴채 來年으로 미루어 봅니다.

協會實務陣을 代表하여 지난 1年의 經過를 赤裸裸하게 會員여러분께 報告드리며 모든 責任을 甘受하겠읍니다라는 本人이 보는 會員觀은 "1個 無名의 會員이야말로 協會事業成功에 있어서의 實質的인 礎石이자 主된 力量인 것"임을 항상 銘心 하겠읍니다.

1年에 한번 있는 總會席上에서 卽興的인 演說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항상 깊이 생각하고 研究하는 會員으로 진정한 協會의 礎石이 되어 그 튼튼한 礎石위에 훌륭한 建物を 지어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새해에도 여러분 家庭에 萬福이 깃드시길 祈願합니다.

速記에 관한 相談을 받읍니다(Counseling of shorthand)

國語 및 英語 速記關係資料, 學習, 請託等 速記에 관한 모든 問議는 本協會宣傳部에서 取扱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親切하게 案內할 것이오니 會員諸位와 速記에 關心이 많은 分은 널리 利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相談所(Counselor): 本協會宣傳部 Tel 47:3341

(國會速記擔當官室)



外國速記界를 돌아보고

(西歐議會速記制度를 中心으로)

金 鎮 基(國會速記課長)

— 目 次 —

(前號掲載分)

1. 序 論
 2. 英國議會速記制度의 發達過程
 3. 英國議會「펜서어드 스텝」(速記課)의
構成과 業務現況
 - 가. 構成要員
 - 나. 會期와 開議時間
 - 다. 速記節次
 - 라. 議員의 字句訂正
 - 마. 速記錄의 發刊
 - 바. 速記錄의 印刷
 - 사. 「펜서어드 스텝」의 權威
- (今號掲載分)

4. 西歐議會의 速記錄發刊現況
 - 가. 本會議速記錄의 發刊
 - 1) 形 態
 - 2) 印刷 및 配付, 頒布
 - 3) 速記錄의 拔萃部分印刷
 - 4) 速記錄의 公體의 性格(署名)

4. 西歐議會의 速記錄發刊 現況

가. 本會議速記錄의 發刊

本會議速記錄 發刊에 있어서는 그 緊急性을 認定하여 어느나라나 會議가 있는 다음날 까지 發刊하고 있는 것이 共通的이다.

發刊形態에 있어서는 速記錄, 速報版,

나. 本會議速記錄의 內容

- 1) 不正規發言의 處理
- 2) 發言하지 아니한 事項의 掲載
- 3) 發言內容의 削除
- 4) 議員에 의한 速記原稿訂正
- 5) 發言議員의 所屬政黨, 選舉區의 掲載
- 6) 會議雰囲気과 情景描寫

다. 委員會의 速記實態

5. 西歐議會의 速記執務實態

- 가. 記錄方法
 - 나. 速記執務方法
 - 다. 譯文方法
 - 라. 機械速記
 - 마. 速記譯文原稿의 編輯
 - 바. 錄音型議會의 執務方法
6. 議會速記士의 養成現況
7. 結 論

要約版, 假版, 合本版등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各國別로 그 形態를 分類하던 다음과 같다.

1) 形 態

佛蘭西 : 佛蘭西에서는 速記錄外에 두 種類의 速報版을 내고 있다.

하나는 開議後 약 30分 經過하여 發刊되는 假要約(Compte rendu "sommaire) 으

로서 演說을 極히 간단히 要約한 것과 議決事項을 內容으로 하고 있다.

또 하나는 開議後 한時間 經過後 發刊되는 要約版(Compte rendu analytique)으로서 速記錄(Compte rendu integral)의 3分之 1의 分量이며 演說을 主로 要約한 것이다.

이러한 速報版은 主로 議員, 行政機關, 新聞, 기타의 報道機關에의 迅速한 情報의 提供을 目的으로 作成되고 있다.

이 밖에 發刊된 速記錄을 다시 一定期間의 것을 合쳐서 合本을 發刊하고 있다.

伊太利·丁抹: 伊太利와 丁抹議會의 本會議速記錄 發刊形態는 우리나라와 같이 完成된 決定版을 發刊하기 前에 校正版의 形式으로 假版(우리나라는 臨時會議錄)을 신속히 發刊해 놓고 暫時 時間을 두고 필요한 訂正을 한 후에 決定版을 發刊하고 있다.

英國·和蘭: 完全한 速記錄을 一旦 發刊해 놓고 一定期間의 것을 合쳐서 다시 合本을 發刊한다. 合本을 發刊하기까지 議員들은 自己 發言部分의 字句를 訂正할 수 있다.

2) 印刷 및 配付, 頒布

英國 佛蘭西 和蘭은 國營印刷工場에서 印刷하고 있으며 伊太利와 丁抹은 우리나라와 같이 民營印刷會社에서 請負로 印刷하고 있다.

印刷된 速記錄은 議員, 政府各機關, 圖書館等に 無料로 配付하는 外에 一般에 게도 販賣하고 있다. 그러나 이 速記錄市販에 있어서는 運營上 收支均衡을 이루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3) 速記錄의 拔萃部分印刷

議員이 自己의 發言部分에 있어서 拔萃

部分의 印刷을 要求할 경우 英國은 우리 나라와 같이 議員의 自己負擔이며 伊太利 上院은 印刷費는 上院에서 負擔하고 議員은 紙代와 表紙代만을 負擔하면 된다. 그러나 伊太利 下院에서는 契約印刷業者로부터 自由로 購入할 수 있다.

4) 速記錄의 公證의 性格(署名)

一般적으로 議員의 字句訂正을 畢하고 印刷된 決定版은 「唯一한 公的記錄」으로 認定되고 있다.

그러나 그 發言이나 行爲에 關해서 速記錄을 「法的으로 絕對的인 것」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또 速記錄에 正式으로 署名을 하고 있는 나라는 佛蘭西와 伊太利上院뿐이며 署名된 速記錄은 議會의 記錄保管所에 收藏하며 이것으로 速記錄의 有效性을 正式으로 確認하는 手續으로 하고 있다.

나. 本會議速記錄의 內容

本會議速記錄은 各國이 共히 院에서의 發言 또는 決定된 一切의 狀況記錄을 內容으로 하고 있다.

또한 院에서의 發言中 弄談이나 反覆된 것은 削除하고 文法的으로 文章을 整理하기 위하여 明白한 錯誤를 訂正하는 것은 可能하나 任意로 挿入하거나 削除해서 結果적으로 發言의 趣旨에 變更을 가져오는 것은 一切 不許하고 있는 것이 各國 모두 共通的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同一하지는 않다.

1) 不正規發言의 處理

議員의 發言中 他議員이 不正規的으로 行하는 發言은 반드시 記錄하지는 않으나 會議와 關係되는 경우에는 記錄하는 것이 通常的인 方法이다.

그런데 英國에서는 不正規發言도 全部 記錄하게 되어 있고 佛蘭西, 伊太利에서는 可能的 限 記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發言하지 아니한 事項의 掲載

速記錄이란 本來 院에서 發言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記錄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發言되지 않은 것은 速記錄에 掲載하지 않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으나 各國別로 그 狀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英國: 書面答辯을 要求하는 質問書 그리고 口頭에 의한 質問에 대한 答辯이 統計表를 內包한다든지 몹시 長文의 경우에는 朗讀을 省略하고 速記錄에 掲載할 수 있다.

佛蘭西: 委員會의 報告者는 自己가 本會議에 있어서 發言權을 拋棄한 경우에 限해서 速記錄附錄에 自己의 發言할 原稿를 掲載할 수 있다.

伊太利下院: 議長의 許可를 얻으면 議員은 圖表, 統計資料를 速記錄에 掲載할 수 있다.

伊太利上院: 發言者가 朗讀을 省略할 뜻을 밝히고 許可를 얻은 경우에는 議長은 그 發言하지 아니한 部分에 대해서 速記錄에 追加掲載을 許可할 수 있다.

和蘭: 統計的 性格의 것에 限하여 掲載가 可能하다.

丁抹: 全然 掲載할 수 없다.

3) 發言內容의 削除

議長이 院에서 行한 發言의 全部 또는 一部를 速記錄에서 削除할 수 있도록 命할 수 있는 權限을 갖지 않은 나라는 英國, 伊太利, 丁抹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議長이 그 權限을 갖고 있는 나라는 佛蘭西 和蘭이다.

一般的으로 議員의 發言中 全部 또는 一部를 削除해서 公表하지 않게 하는 것은 院內에서의 發言의 自由原則에 反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削除의 限界를 다음과 같이 定하고 있다.

1. 發言한 議員의 自意에 의해서 速記錄에서 그 一部를 削除할 수 있다.

2. 議會의 幹部會가 速記錄에 掲載해서 는 안된다는 事項에 대해서 決定한다.

3. 議長이 削除權을 行使하는 것은 許可없이 發言한 때, 發言制限時間을 超過한 때, 發言許可가 撤回된 後 發言한 때, 議員의 品位를 損傷할만한 말을 使用한 때 로 되어 있다.

4. 기타 秘密會議나 非常時에 國家安全 保障上 必要할 때

4) 議員에 의한 速記錄原稿 訂正

議員이 自己發言 內容에 대하여 訂正을 하고자 할 때 伊太利와 丁抹은 우선 速記錄의 假版(우리나라의 臨時會議錄)을 發行하여 國會議員들이 自己發言部分에 대한 訂正을 申請할 機會를 주고 있으며 英國이나 佛蘭西와 같이 假版을 發行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速記士가 「타이프라이터」로 打字된 速記顯文原稿의 副本을 當日 會議場에 가져가거나 또는 發言者가 直接 事務室에 찾아와서 發言에 대한 訂正申請 節次를 밟고 있다.

그러나 會議當日 미처 訂正하지 못한 것은 나중에 速記錄合本版을 發行할 때에 다시 訂正의 機會를 賦與하고 있다.

一般的으로 議員의 訂正要求 範圍는 記錄의 正確度나 信賴感을 損傷할만한 變更을 加해서는 안된다는 原則이 各國共히 規則으로 定해져 있다. 內容의 變更 또는 새로운 事項의 插入은 一切 許可되지 않음

며 速記錄의 正確度를 保證하고 信賴感을 損傷시키지 않게 하는 것은 速記錄을 擔當하고 있는 사람들의 責任으로 되어 있다.

5) 發言議員의 所屬政黨, 選舉

區의 記載

發言한 議員의 所屬政黨名을 發言時 일이 記載하고 있는 나라는 和蘭뿐이며 英國에서는 議員의 發言 처음에만 그 議員의 選舉區를 姓名다음에 記載하고 있다.

6) 會議雰圍氣와 情景描寫

速記錄作成에 있어 會議雰圍氣와 情景을 描寫하는 문제에 대해서 英國議會와 佛蘭西議會는 완전히 相異한 立場을 取하고 있음은 매우 興味있는 일이다.

英會議會는 速記錄作成에 있어서 어떠한 着色도 排除하고 있다. 例를 들면 「拍手」라든가 「笑聲」이라든가 이런 것을 記載하는 것도 許容되지 않는다.

그 理由는 「拍手 많음」이라든지 「擲擲」라고 記載했을 경우 「拍手」가 많든지 「적다」든지 또는 「擲擲인가」「아닌가」하는 이런 判斷은 各自의 意見의 範疇에 屬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形容詞를 挿入하는 것은 結局 讀者에게 影響을 주고 또 하나의 發言을 다른 發言과 比較해서 不當하게 特別取扱하고 있다는 印象을 주는 結果가 되기 때문이라고 英國議會의 한 關係者는 말하고 있다.

이와 反對로 佛蘭西議會에서는 速記士가 나타낼 수 있는 可能한 모든 狀況을 描寫하고 있는 바 佛蘭西議會의 速記錄中에서 會議雰圍氣를 描寫한 實例를 여기에 紹介해 보고자 한다.

《例》

議長○○○: 無任所長官의 要求를 받아

들여 議事日程을 變更하겠습니다. (이때에 首相이 왼쪽門을 通하여 入場한다. 共和國民主聯盟·獨立共和黨 議席에서 拍手갈채가 나온다)

議長○○○: 首相의 發言이 있습니다.

(이때 共和國民主聯盟·獨立共和黨 그리고 P.D.M 議席에서 렬렬한 拍手 소리)

首相○○○: 議長님 議員여러분! 오늘 은.....

(共和國民主聯盟·獨立共和黨 및 P. D.M. 議席에서 拍手소리

社會黨 및 共產黨 議席 여러곳에서 高 拍手소리)

首相○○○: 例를 들어 說明하자면.....

(社會黨, 共產黨 議席에서 高拍手소리)

(社會黨, 共產黨 議席에서 여러사람 음성) (그래! 아이고! 富者이구만)

議長○○○: 發言하실 분 없습니까?

(會議場은 조용하다)

議長○○○: 議事規則 第114條에 의해서 本案件이 通過된 것을 宣布합니다.

○○○議員: 社會黨은 反對다.

○○○議員: 共產黨도 反對다.

(同 法案은 通過되었음)

다. 委員會의 速記實態

各國別 委員會速記의 實態는 다음과 같다.

英國: 私法案을 審議하는 委員會는 錄音器에 의해서 記錄하고 있으며 公法案審議委員會 및 特別委員會의 速記는 主로 契約을 締結하고 있는 民間速記事務所의 速記士에 의해서 記錄業務가 遂行되고 있다.

伊太利下院: 契約에 의한 請負速記士로써 充當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本

會議 速記士가 支援한다.

伊太利上院: 特히 必要하다고 決議된 때에 限해서 速記한다.

佛蘭西: 委員會速記錄은 發刊되고 있지 않으며 간단한 議事錄을 作成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行政府의 長官 發言時는 委員會의 決議로써 速記錄作成을 要求할 때가 있으며 이때에는 本會議速記士가 擔當해서 執務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本會議速記士로써 速記業務를 擔當할 수 없을 때에는 民間速記士의 支援을 받는다.

丁抹: 委員會速記錄은 發刊하고 있지 않음.

5. 西歐 議會의 速記執務實態

가. 記錄方法

各國議會의 記錄方法에는 速記型議會와 錄音型議會의 두가지로 大別할 수 있다.

速記型이란 速記專用과 速記를 主로 하되 速記補助用으로 錄音器를 併用하는 것을 말하며 錄音型이란 錄音器專用을 말한

다.

英國에 있어서는 本會議는 速記專用으로 一切 錄音을 하지 않고 있으나 委員會는 錄音器專用으로 하고 있다.

佛蘭西, 伊太利, 和蘭等은 우리나라와 같이 主로 速記에 의하나 速記補助用으로서 錄音器를 使用하고 있다.

特히 佛蘭西와 伊太利는 各 速記士가 錄音器를 가지고 自己 擔當速記時間中에 自由로 錄音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丁抹議會는 全的으로 錄音器專用이다.

나. 速記執務方法

速記錄의 發行은 어느나라나 緊急을 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要求에 副應하기 위해서 한사람 또는 몇사람의 速記士를 한 單位로 몇個 組를 編成해서 會議時間中 各組가 順序대로 會議場에 들어가 速記執務를 하게 되어 있음은 共通的이다.

(表 1)

各國別 速記執務狀況表

國 名	執務速記擔當速記士의 數時間(分)		備 考
英 國	2	10	1. 1名은 不正規發言關係로 나가나 「質問時間中」은 2名이 同時에 速記한다. 2. 夜間會議時는 一定時間부터 5分交代制로 한다.
佛 蘭 西 (下 院)	2	3~15	1. 1名은 3分 다른 1名(責任者)은 15分 2. 3分씩 5名이 速記한 것을 15分間 速記한 사람이 校閱한다. 3. 記錄部長은 會議終了時까지 參席.
伊太利(下院) (上院)	2 1	3 5	
和 蘭	1	5	
丁 抹			1. 錄音에 의해 記錄한다.

또 翻文 編輯時間을 可及의 短縮하기 위해서 한 個組의 擔當速記時間을 짧게 하고 있는 것이다.

各國別 本會議速記執務狀況은 別表와 같다. (表 1 參照)

다. 翻文方法

速記文字로 速記한 것을 一般文字로 翻文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手筆로 하고 있어 상당한 時間이 所要되나 「로마」文字 使用國國家에 있어서는 打字機를 利用함으로써 業務執行에 迅速化를 期하고 있다.

打字機를 利用 翻文함에 있어 佛蘭西와 和蘭은 速記士 自身이 直接 打字하며 英國, 伊太利는 速記士가 速記한 것을 打字手에게 口述해서 速記原稿을 作成하고 있다.

이 경우 打字手는 自身이 打字하지 될 部分을 速記士와 같이 미리 傍聽席에서 들어 두었다가 打字하기 때문에 翻文의 迅速과 正確을 期하는데 큰 利點이 있다 하겠다.

라. 機械速記(Steno type)

音聲記號를 「타이프」해서 速記를 해나가는 方法을 Steno type速記라고 하는데 이것은 특별한 記錄方法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速記의 一方式이라 할 수 있다. 歐美諸國에서는 이미 이 Steno type가 많이 發達하여 널리 普及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考察되지 않고 있다.

伊太利上院에서는 Steno type速記士만으로 執務하고 있으며 英國, 佛蘭西 등 其他國에 있어서는 手筆速記士와 함께 Steno type速記士가 같이 速記執務를 하고 있다.

마. 速記翻文原稿의 編輯

英國, 伊太利, 和蘭에서는 速記士 自身이 自己 速記翻文原稿의 잘못을 訂正하고 反覆된 句節을 削除해서 大體的으로 印刷體制에 適合한 編輯作業을 하고 있으나 이것으로 완전히 編輯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다시 編輯職員이라든지 校閱職의 손을 거쳐서 編輯作業을 完了하게 되어 있다.

佛蘭西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速記士에 의한 編輯作業은 過히 重要視하지 않고 주로 이 일은 編輯校閱職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있다.

編輯을 끝낸 原稿은 佛蘭西, 英國, 伊太利下院 등이 우리나라와 같이 部分的으로 會議中에도 계속해서 印刷所에 보내지고 있으며 특히 佛蘭西에서는 速記翻文原稿紙와 印刷所로 부터의 校正紙의 授受, 傳達方法에 있어서 事務室과 印刷所間에 地下「콘베어 시스템」을 導入하여 2km의 距離를 7分間에 授受할 수 있게 施設을 하여 作業의 迅速化를 圖謀하고 있다.

바. 錄音型議會의 執務方法

現在 英國下院의 各常任委員會와 丁抹議會가 錄音型議會에 屬한다.

丁抹議會는 1968년에 國會幹部會(The presidium of the folketinget)의 決議로써 丁抹議會 本會議의 記錄을 錄音器專用品으로 記錄할 것을 決議하였다.

이와 같은 決定을 하게 된 主要原因은 議會速記에 必要不可缺한 有能한 速記士의 確保가 不可能해 겠기 때문이라 한다.

丁抹議會의 錄音記錄業務狀況은 다음과 같다.

① 職員構成

記錄部長 (Revision officer)	1名
校閱職 (Reporter)	1名

錄音對照係 (Check-sittener)	4 名
「타이프리스트」監督 (Supervisor)	1 名
「타이프리스트」	8 名
技術者 (Technician)	1 名
計	19 名

② 職務分擔

錄音: 會議場에서는 7分30秒마다 錄音 「테이프」를 갈아끼우며 錄音이 끝난 「테이프」는 即時 「타이프리스트」에게로 돌아간다.

「타이프리스트」: 如何한 種類의 編輯도 一切 하지않고 錄音 「테이프」에 錄音된 대로 全部 「타이프」해 나간다.

「타이프리스트」監督: 「타이프라이팅」의 業務가 쉬지 않고 계속되게 하며 또 必要한 경우에는 언제나 「타이프리스트」가 긴급한 指示를 받을 수 있는 態勢를 갖추어 놓고 있다.

錄音對照係: 錄音 「테이프」에 의해 「타이프」로 作成된 原稿가 錄音대로 되어 있는지의 與否를 그 「테이프」를 틀어 보던 시 對照한다.

이때에 句讀點을 고친다든지 本文을 適宜하게 區分한다든지 引用文을 「체크」한다든지 文法에 틀린 것이 있으면 訂正하는 것이 이 係의 任務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業務에는 「타이프」原稿의 實際의인 編輯은 一切 包含되지 않는다.

檢閱職: 「타이프」原稿의 編輯, 檢閱을 한다. 檢閱職은 各自 1時間交代로 院의 會議를 聽取 (monitor) 한다.

檢閱職은 錄音對照가 끝난 「타이프」原稿를 다시 意味가 通하게 言語形式을 調整하고 또 그 內容이 發言議員이 나타내려는 意思表示와 一致하도록 한다든지 해서 必要한 編輯檢閱을 하며 會議進行中原

稿는 계속해서 印刷所에 들린다.

記錄部長: 記錄業務를 總括해서 監督한다.

記錄部長은 編輯이 끝난 原稿에 대해서 必要한 最終檢閱을 하고 最後의으로 發行되기 前에 原稿를 엄밀히 檢討한다.

6. 議會速記士의 養成現況

議會가 必要로 하는 高速度의 速記能力을 保有하고 또한 速記職務에 相應한 一般의 教育水準에 達하고 있는 速記士를 職員으로 採用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各國의 共通된 現象이다.

이와같이 速記士의 確保가 어렵게 됨에 따라 英國議會의 委員會速記나 丁抹議會의 速記는 全的으로 錄音器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는 實情이다.

英國: 英國에서는 議會에 종사하는 모든 職員의 停年이 60歲임에도 唯獨히 速記士만은 65歲까지 本人의 希望에 따라 停年을 延長해 주고 있는 實情이며 佛蘭西에서는 速記士에게는 特典을 주어 休會期間에는 出勤을 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다른 職業을 兼職할 수도 있다.

議會의 速記士養成狀況을 보면 英國議會에서는 速記士養成問題가 數次 論議되었으나 養成計劃에 대한 最初의 試圖가 成功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實施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最近에 다시 養成問題가 學論되어 速記를 배우려는 希望者를 誘致하는 妙案을 發見하기에 腐心하고 있는 實情이다.

佛蘭西: 兩院에는 速記課程 (An official stenographic Course)이 公式으로 設置되어 있다.

이 課程의 學生들은 大學의 科目도 同時에 工夫하고 있으므로 엄밀히 速記練習生이라는 것으로는 分類되어 있지 않다.

이 課程의 期間은 3年間으로서 受講하고 있는 大學生은 그 進陞狀況에 따라 經濟的 援助를 받고 大學의 科目도 工夫할 수 있게 되어 있다.

議會速記士에 缺員이 생긴 경우 이들 學生은 다른 사람과 같이 議會速記士 採用試驗에 應試할 수 있다.

現在의 下院速記士의 大多數는 이 課程을 거쳐 採用된 것이다.

그러나 上院쪽은 現在까지 이 課程을 거쳐서 採用된 速記士는 한사람도 없다.

伊太利: 議會事務當局에 의해서 組織된 「速記課程」(Courses on stenography)이 있다.

이 課程의 對象者는 「高卒로서 基礎적인 速記의 知識이 있는 者」로 되어 있다.

試驗에 合格된 者는 請負速記士(Contract reporter)에 任命되어 委員會速記士로 종사한다.

本會議速記士로의 昇進은 公開競爭試驗에 의한다.

現在 下院 本會議速記士의 3分之1, 上院의 경우는 全員이 이 課程을 거쳐서 任命된 것이다.

7. 結 論

民主主義國家에는 國民에 의하여 選出된 代表者로써 構成된 議會가 있고 民主的으로 運營되고 있는 議會에는 반드시 速記士에 의해서 院內에서의 發言을 事實대로 記錄 保存하고 있는 것이 現代에서는 하나의 不文律처럼 되어 있다.

今般 西歐議會의 速記制度를 考察한 바

丁抹단이 錄音器에 의해서 記錄을 하고 있고 英國, 佛蘭西, 伊太利, 和蘭 등은 速記士에 의해서 記錄이 되고 있었다.

西歐羅巴의 議會中 唯獨丁抹단이 錄音器에 의해서 記錄을 하고 있는 理由는 議會가 必要로 하는 有能한 速記士를 確保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니 結局 議會의 記錄은 速記士에 의해서 行하여지는 것이 가장 理想的인 方法이라고 하겠다.

그 다음에 特記할 事項으로서는 機械速記인데 이미 歐美先進諸國에서는 이 機械速記가 手筆速記와 함께 速記業務를 擔當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考案도 되고 있지 못한 狀態에 있다.

元來 速記는 音을 記錄하는 것이므로 音節이 적은 文字일 수록 機械速記化가 容易한데 우리나라 말의 音節은 近 1,300音節에 達하기 때문에 機械速記를 發展시키는데 隘路가 되고 있으며 설사 機械速記가 開發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狀況에서는 經濟的인 面에서 보더라도 機械速記가 手筆速記에 比해서 便利하다고 만은 볼 수가 없겠다.

그리고 現在 「로마」文字 使用圈 國家들은 打字機를 利用하여 翻文을 신속히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日本과 같이 漢字를 兼用하고 있기 때문에 手筆翻文에 依字할 수 밖에 없겠다.

以上과 같이 比較 檢討해 볼 때에 英國의 議會制度나 速記制度가 그 나라의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등의 諸般狀況에 맞게 適應 發展시켜 온 것처럼 우리 議會의 速記制度 亦是 우리나라의 諸般 與件에 맞추어서 現行 制度를 改善 發展시켜 나가야 되겠다.

(完 結)

韓國 速記界 發達의 根源을 되새기며

— 參 席 者 —

姜駿遠 (서울法式創案者)
張善泰 (逸波 ")

李東根 (東邦法式創案者)
金星漢 (高麗法式·協會指導委員)

司 會: 金允洙 (宣傳部長)

記 錄: 河良培 (協會記者)

日 時: 1975年 11月 13日 14時

○ 司 會 저희 後輩들이 일찍이 解放前
後에 速記를 創案하시어 韓國議會史記錄과
速記文化暢達에 功勞가 되신 여러 선
생님을 모시고 그 동안의 좋은 말씀과 速
記界 앞날을 위한 忠告의 말씀이 제
실 것일 바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
했습니다.

座談會論題는 대개 1. 創案動機와 過程
2. 解放以後의 速記界의 발전과 3. 速
記界의 앞으로의 進路

이러한 순서로 해서 자유로이 여러 말
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創案動機와 過程에 대해서 서울
法式을 創案하신 姜先生님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 創案動機와 過程 —

○ 姜駿遠 저부터 發言權을 주셔서 고
맙습니다. 사실 저희보다 먼저 速記를
창안한 사람으로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사람중에 돌아가신 분에게 고맙다는
人事를 먼저 하고 싶어요. 누구나 하
던 1909年 「시카고」에서 朴如日先
生이 거기에서 내던 新韓日報에다가
「프리트먼」式 비슷한 것을 냈는데
再昨年인가 어느 新聞에서 보니까
「자마」로 森林營業하러 가셨다고 그
랬는데

그것으로 계속해서 營業을 못하시고
만 營業을 하셨는데 돌아가셨는지 어
렸는지 모르지만 功勞者입니다. 저의
創案動機는 한 20살 적에. 그때 우리
나라에 民族團體로 新幹會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에 약
간 民族主義의 運動을 하던 사람이
쉬인 집안에 있어서 그때 지금 商工
會議所 2層이 公會堂입니다. 그래서
제가 學生服을 입고 갔었는데 그때
新幹會에서 무슨 특별한 講演을 하
던 때인데 아주 正服을 입은 산뜻한
사람이 演士 바로 옆에 앉아서 지금
으로 말하면 速記席에 速記士 한
사람이 무엇을 쓰고 있더군요. 일
글을 보니까 韓國사람 같아요. 그
래서 애기가 다 끝난 後에 人事를 하
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빠른 말을 쓰
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速記
라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韓國사
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내가 여기에
대단히 興味가 있는데 한번 집에
찾아가서 배울까요? 그러니까 간단
하다고 어느날 오라고 해서 그 양반집
을 한번 찾아 갔어요. 그랬더니 처음
에는 자기가 發見한 것이라고 7자
는 이렇게 쓰고 2자는 이렇게 쓰고
꼭 가르쳐 주는데 이것을

조금 演習하다가 그때 세번째인가 찾아 갔을 때 實坦을 했어요. 이것이 내가 조금 해 보았는데 嚴正友式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해보니가 연습을 해도 안돼요. 가, 거는 大文字 小文字로 그만이지만 고, 구, 그, 기는 줄 하나가 더 붙어요. 그러니까 一字二線이 돼요. 그래서 이것 안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本町이죠. 日本사람들의 현책방이 많았는데 거기를 찾아보니까 「피트맨」식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때 1圓이니까 싸기도 해요.

거기 우두머리 店員이 韓國사람인데 學生이 이 책을 찾아서 빌려하느냐고 그래요. 글썽 내가 흥미가 있어서 그런다고 혹시 다음에 이런 책이 또 들어오면 달라고 부탁을 해놓았어요. 그리고 1週日쯤 후에 가니까 「그래그」식이 나왔어요. 그 책이 原書인데 그것 때문에 그 책을 읽기 위해서 내가 英語를 사실은 배웠어요. 그때가 1932년쯤인데 그리고 國立圖書館에는 좀 더 있겠지 하고 가보니까 英語速記책은 하나도 없고 日本語速記책이 한 20가지 있어요. 보니까 速記라는 것이 無窮無盡한 世上인데 失禮이지만 嚴正友씨가 만든 그식가지고는 안되겠다 또 할려면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이래서 내가 한 3年동안 沒頭한 것이 지금의 내식인데 제일 처음

에 나는 우선 頻度를 나 자신이 뽑아왔어요. 그때 이미 내가 책하나 구한 것은 돌아가신 崔鉉培선생님이 延禧大學校에서 助詞까지 다 포함해서 頻度를 한번 낸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文教部에서 낸 것보다는 빠릅니다. 내가 頻度를 내고 그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다릅니다. 왜 다르냐! 나는 助詞를 符號로 쓰기로 작정하고 助詞의 반대를 主詞라고 그러는데 主詞의 頻도와 助詞의 頻도를 따로 나는 採擇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線의 素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결국 速記의 글자라는 것이 大小 曲線 直線 합쳐서 삼심오륙字 밖에 안되는 것인데 이것을 그 많은 發音을 어떻게 해당시키느냐 여기에 고생을 했지요. 그러니까 첫째 頻도에 고생을 하고 삼심오륙字로써 우리 發音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래서 主되는 發音하고 附隨의인 發音 이렇게 대체적으로 나누어서 한 것이 기본문자 卅音 그러니까 예사 소리에 아홉가지를 사실은 여섯글자가지고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速記法은 특별히 구별할 경우만 하지 「나, 라」 「파, 마」 「자, 다」를 사실상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섯가지 모양을 가지고 아홉



(姜駿遠先生)



(張基泰先生)



(李東根先生)



(金星漢先生)

가지 文字에 해당시켰다는 것이 특징이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一音節 一字이며 받침이 앞에 오는 符號가 되고 또 뒤에 오는 符號는 助詞가 됩니다. 그런데 主詞와 助詞를 그 후에 한번 조사해 보니까 글자수 효로 따져서 主詞수효와 助詞의 수효가 우리 말에 있어서는 같은 分量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助詞를 어떻게 빨리 쓰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主詞를 어떻게 간단히 쓰느냐 하는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나는 이렇게 본 것이 제식입니다.

○ 司 會 다음은 創案하셔가지고 그 式을 완전히 완성시키기 까지의 過程을 얘기해 주시지요.

○ 姜 駉 遠 그러니까 解放前까지는 아주 弟子도 없이 나 혼자 연습해가지고 내가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937년에 내가 京城日報에 記者로 들어갔는데 그때 日本語速記책을 하도 많이 봐서 나는 나대로 日本語速記法 하나를 사실 創案하고 있었어요. 그 20餘가지의 가장 좋은 것을 綜合해서 日本語速記도 했었고 우리말速記를 併用한다는 것으로서 京城日報의 記者가 된 것인데 解放되기까지 그대로 從事하고 있었지요.

○ 司 會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逸波法 式을 創案하신 張선생님께서 創案動機와 過程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 張 基 泰 내 경우는 姜선생님과 같은 아주 대조적인데 그 당시 金天演씨도 같은 「외세다」式이니까 내가 잘 알고 있었는데 나의 職場이 처음에 日本에서 나와가지고 放送局에 3年정도 있다가 그때 待遇관계로 해서 每日新報로 옮겼지요. 그런데 每日新報에서 속기는 대개 學藝部에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學藝部에서 상대하는 것이 부인들입니다. 이 부인들을 몰아 놓고 對談을 할 때 雅叙園이든지 어디든지 구석진 방을 찾아가서 韓國말로 얘기를 하고 그것을 나보고 베껴달라는 것이예요. 그런데 日本語速記하던 사람이 한국말 하는 것 옆에서 베끼자니 그것이 처음에 당최 되어야지요.

한국말을 日本語로 翻譯을 해서 쓰고 또 나중에 韓國말로 翻譯을 해가지고 原稿를 만드는 2重翻譯이 됩니다. 그런 것이 한달에 한번쯤 걸리는데 몇년을 하다보니까 결국 나는 日本語速記는 제쳐놓고 이것은 이것대로 또 쓰는데 자꾸 틀려지게 되었어요.

결국 動機는 거기에서 나온 것인데 解



(座談會光景)

放)이 딱 되자 맨 먼저 생각한 것이 國會입니다.

제일 궁금한 것이 國會速記를 누가 할 것인가 이 것이 궁금한데 나나 日政때 일하던 몇사람이 들어가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도저히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사실상 그 사람네들이 들어가서 國會에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토하나 틀리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目的이 빨리 國會速記士를 몇사람이라도 養成해가지고 나가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하면 그것이 幾何學的인 數字로 늘어 갈테니까 그저 우선 몇사람이라도 한글速記를 완전히 할 수 있는 사람을만 들어내야겠다 이 러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내 자신이 우선 한글速記를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안 돼요. 쓰려고 하면 日語速記가 먼저 튀어 나옵니다. 언제 그것을 訂正을 하고 다시 쓸 사이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나 자신은 좀 써볼까 하다가 완전히 拋棄해 버렸어요.

나는 한글速記는 안한다. 그 대신에 이速記術을 가지고 學生을 가르쳐서 한글速記士를 만들겠다 그래서 내가 解放되고 나서 한글공부를 약 한달 동안 하니가 대개 綴字法을 알겠어요.

그리고 記號整理하고 記號를 文法에다 맞추는 것이 아마 晝夜로 한 6個月 걸렸을 거예요. 나는 좌우간 어떻게 하든지 하루빨리 한글速記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밤

에 서너時間씩 자면서 한 6個月동안 하다가 보니까 대중 유포이 잡히더군요. 이런 式으로 가르치고 이런 式으로 연습만 제대로 해주면 한 3,000字台는 無難히 쓸 것이다 설마 배우는 사람이 그자야 못하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큰 습자지에다가 6卷으로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新聞社니 뭐니 아는 친구도 있지만 다니면서 이것을 직접 보여주고 韓國사람도 이런 過程으로 1年이고 1年半이고 배우면 반드시 남의 말을 한 3,000字 정도는 速記로 쓸 수가 있다 하나 뭐 보는 사람이 알아요? 내가 설명하니까 그저 그런가보다 고개 끄덕고덕 하고 아주 좋다고 그러기만 하고 나보고 써 보라고 그러면서 아! 그것 참 간단하고 좋다고 하는 그런 式이지요. 그리고 大邱放送局에서 講演을 한번 해보고 學生들을 가르치려고 창소를 이삼십名 들어가서 연습을 할

수 있는 방하나를 구하려고 찾아다니는데 아주 아무리 돌아다니도 안되겠어요. 정식으로 무엇을 갖추고 책상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歲月만 지나가지 도저히 안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國民學校敎室 하나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시작을 한 것이예요. 그런데 國民學校 學生의자가 되어서 어른들이 앉으니까 불편한데 그래도 거기서 한달쯤 하다가 어떻게 누가 洞會 2層이 비어있으니 써보라고 해서 거기 좀 갔다가 너무 시끄럽고 해서 그러다가 鍾路 3街로 갔는데 鍾路 3街는 또 드나드는 門이 밖으로 났으면 좋은데 남의 집 안방



마루로 해서 들어가게 되어서 좌우간 나보다도 1期生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나는 그저 욕심이 사실상 내가 한글速記를 완전히 쓰면서 애들을 가르쳤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배우는 1期生자체가 선생님은 뜻쓰는데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선생님은 日語速記하고 직접 속기하는 것보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우리들을 가르치는데 정말 선생님같이 써질 수 있느냐 이것이 몇달동안 基本文字니 뭐니 해가지고 완전히 익히기 전에는 속도가 나오지 않으니깐 그간에 슬렁슬렁 이것이 되느냐 안되느냐 얘기를 해요. 누가 그것을 배워서 먼저 나간 사람이 있어야 後輩들이 본을 따가지고 나도 된다하지만 이것은 1期生이니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비로소 써지게 되고 난 뒤에야 참 나도 안심하고 1期生도 안도감을 가졌지요. 그 다음부터는 부족한 것 보충해가지고 가르치게 되니까 그 다음期生부터는 아주 편해요, 제가 속기를 創案한 動機라고 하면 순전히 國會速記士를 한사람이라도 일꾼 만들어서 國會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나라도 처음부터 速記錄을 갖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 司 會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東邦法式을 創案하신 李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 李東根 저는 속기와 우연한 동기로 因緣이 맺어졌어요.

제가 中學校에 다닐때 그때 「나카베 마사요」씨가 日本全國은 물론이고 심지어 滿洲까지 巡廻講演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때 우연히 내가 다닌 中學校에 그양반이 들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자극을 받아 가지고 低學年부터 시작했으니깐 과히 부담감 가지지 않고 배웠어요. 그래서 卒業하기 전에 學校 校內 行事라든가 이런데서 속기를 했고 그 후에 조금 보충을 해가지고 國內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解放되기 한 2年前에 서울에 처음 왔어요. 그때 내가 文學青年이라고 그럴까요. 내뎐에는 脚本도 쓰고 한참 그럴 때입니다. 그러다가 解放後에 雨後竹筍格으로 여러가지 新聞社가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文藝판계로 해서 文藝新報社라고 몇년 잘 됐었는데 있었어요. 그 社長되는 양반하고 내가 서울와 가지고 私의으로 접촉이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와서 좀 봐달라고 해서 新聞社에 일을 보게 됐는데 新聞이 文藝新報니까 그때 아마 崔銀姬씨가 갖「데뷔」해서 한참 꽃핀 때일 거예요. 「인터뷰」하는데 그때만 해도 한글速記가 있을 수 없어요. 순전히 「나카베」式 그대로지요. 張선생님 말따마나 2重翻譯을 하고 또 한글로 고쳐 쓰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터뷰」다 해서 각 新聞社의 記者들이 같이 물려나갔는데 速記를 할 줄 모르는 것은 고사하고 좌우간 내가 速記를 하는데 소위 曰 記者가 그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速記界가 이렇게도 어두웠던가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나는 國內에 없었기 때문에 速記가 상당히 보편적으로 普及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記者가 그것이 무엇이나고 할 정도니 不問可知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速記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어가지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速記가 하나 필요하지 않겠느냐 거기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해서 한 3년간이 걸렸는데

動機는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 腐心한 것은 動詞略字이고 姜선생님도 구성이 一劃一字 助詞뒤에 붙는 것 받침이 앞에 붙는 것 이런 것은 「나카네」式에서 緣由한 것 같은데요 내가 처음에는 解放速記라고 했지요. 그때 嚴正友씨가 解放初期의 新聞에 廣告가 아주 자주 나왔어요. 저는 그때 내책을 新聞社에 있는 덕분에 줄을 대가지고 麻浦刑務所에서 인쇄를 했어요, 종이값만 내가 대고 인쇄는 그냥 했습니다. 그러니까 紙質도 선화지 시커먼 것이고 印刷技術도 그렇고 銅版技術도 말이 아니고, 그래도 그나마라도 輪轉機 지금 들고 있는데 嚴正友씨 것이 廣告가 대문짝 같이 나오는데 序論에 이것은 速記책인지 政治책인지 알 수가 없어요. 金九先生 金奎植博士 우리나라의 巨物級 政界要人們이 전부 序文을 한장씩 썼어요. 그래서 기가 죽었어요. 이것 야단났다 이게 機械 멈출수도 없고 내가 경솔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친김에 해보자 해서 하여간 嚴正友씨 책이 빨리 나와야 내가 한번 보겠는데 이것이 廣告만 자꾸 있지 빨리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나온 다음에 明洞書店에서 하나 구해가지고 보니까 우선 外觀上으로 보아도 우스워요.

보니까 「페이지」가 序論紹介로 다 차지하고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구성이 탕소리 흔소리 받침 그것이 무슨 速記나 말이에요.

그래서 안도감이라고 그럴까 내가 중단을 안시킨 것이 다행이다 이런 감이 들고 하여간 高興가 잊갈리는 이런 장면도 있었어요.

○ 시 會 그 다음에 高麗法式에 대해서 金선생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 金星漢 高麗式의 創案者는 金天漢씨인데 제가 아우가 되어서 거기에 조금 補充을 하고 後鑿養成이라든가 지금 현재까지 제가 사실 速記에서는 관여를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創案者 대신해님들이 제 신에 제가 외람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日帝때 中學校 다닐때 과거에 同盟通信社에 速記記者로 金天漢씨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日本하고 電話速記를 하는 것을 제가 신기하게 느꼈고 그리고 日帝때 「와세다」 通信教育講義錄이라고 있었어요. 그것을 제가 日本말도 제대로 잘 못하던 中學校 1學年때 부터 그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金天漢씨가 徵兵이 되어서 軍隊에 들어갔는데 하여간 저도 日帝때에 조금 했었어요.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보니까 역시 우리나라에 議會制度가 생기고 하니까 速記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대강 「와세다」式에 基盤을 두고서 그 비슷한 것을 저도 조금 만들어 보고 하다가 兄弟간에 누가 한다는 것보다도 統合해서 그때 國立圖書館을 金天漢씨가 많이 드나들면서 研究를 했어요. 물론 몇분들이 하고 있다는 것도 들어 보았지만 그래도 여럿이 경쟁하는 가운데 速記가 여러가지 나오게 되면 長短點이 서로 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발전이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速記를 創案했는데 그때 逸波式이라든가 姜駿速式이라든가 있었지만 뒤늦게지만 한번 해보자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議會速記를 처음 써보았고 그때부터 個人教授 비슷하게 하는 가운데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學院을 만들어서 해보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學院을 좀 해보다가 어려움에 부딪쳐서 중단되었고

지금은 命脈을 通信教育으로 유지해 보려고 합니다.

— 解放以後의 速記界의 발자취 —

○ 司會 創案動機와 過程에 대해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解放이후의 速記界의 발자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弟子들을 養成하시는 過程에서의 애로사항 기타 여러가지 결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姜駿遠 제가 먼저 解放直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立法議院을 1946年 12月 12日인가 열게 되어 있는데 그해 10月 1日쯤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라디오」放送이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軍政諮問機關에서 速記士를 모집하고 있다 뜻있는 사람은 오라 그래서 내가 「라디오」를 듣고 우선 가서 經歷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 그러냐고 그러면 미안하지만 당신이 專門家이니 간단히 무엇 좀 써보라고 하면서 新聞을 들고 읽어요. 그래서 내가 써가지고 翻譯을 해서 주니까 그만하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同志가 몇분이나 계시냐고 혼자서는 하기 어렵지 않소? 물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제가 朝鮮通信記者로 있을 적에 그 事務室을 빌려서 朝鮮語速記學會라는 것을 만든지가 얼마 안되었을 적이에요. 그때 朴寅泰씨도 있었고 金天漢씨도 加擔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몇분 있는데, 조금 苦役이겠지만 이 안에 임시로 이름은 아무래도 좋으니 이미 자기식에 손난 사람들도 모아서 연습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어느 式을 가르친다 이것보다도 나중에 모자라면 써보아서 가장 좋은 式을 가르치지만 이미 연구한 學術에 대한 것은 약간 尊嚴한 것이니까 피차 認定해야 한다 서로들 研究하는 과정

에서 하자 그래서 그 후에 또 「라디오」를 듣고 온 사람들이 몇이 있었는데 實務者가 여섯 연습생이 일곱 이렇게 해서 여섯은 實務者로서 나自身도 쓰고 朴寅泰씨 金天漢씨 그의 박중완씨 또 서울에서 私設速記事務所에 종사하던 日本語를 쓰던 박용길이라는 분이 太郎에 있는데 그 양반도 朴寅泰씨가 안다고 해서 불러와 가지고 여섯이 執務하다가 나중에 열둘이 執務를 하고나서 그 후에 立法議院事務處를 나자신의 法的 宣傳機關으로 삼는 것은 안 될 일인가 나는 마로 우리 집에다가 講習所를 낼 수 밖에 없다 그것이 道理다 그래서 내가 먼저 냈더니 그 후 朴寅泰씨도 내고 金天漢씨도 내고 해서 事變때에는 서울市內에 速記學院이 여섯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꽃이 피었지요. 또 분위기도 좋고 해서 速記界의 全盛時代이었지요. 또 速記士 뽐을 때에는 式을 不問하고 우수한 사람만 뽑자 그래야 우리나라 速記를 기르는 방법이 된다 이래가지고 全盛時代였었는데 6·25事變이 速記에 대해서 굉장한 害毒을 주었지요.

○ 張善泰 立法議院이 시작되기 전에 나한테는 사람이 한번 왔었어요. 立法議院速記를 좀 맡아서 해달라고 왔는데 그때 제가 거절했지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지금 忠武路 2街에 事務所를 조그맣게 차리고 1期生 모집을 할 때인데 그때 와서 봐달라고 그러는 것을 나는 거기 들어가서 그것을 할 사이가 없고 지금 가르치는 일이 급하니까 다른데 가서 교섭을 해주시오 하고 그 후 연락도 안하고 新聞에 廣告를 보고서도 그냥 學生들만 가르치고 있었는데 初期에 그래도 姜駿遠씨가 들어가서 애썼지요.

○ 金星滿 그때가 이름이 速記長시절이
저요. 그때 한번 가니까 速記長이라고 부
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 張基泰 速記文化協會다 뭐다 간판걸
고 講義錄같은 것도 써보고 速記事務도 해
보다 그냥 가르치는 것 한가지로 나갔는
데 鍾路 3街에서 1期生이 나오고 2期生이
배우다 거기서 장소를 내달라고 해서 내
대신 1期生 몇이 敎化門앞에서 달아가
지고 몇달동안 했었다가 내가 新設洞에다
자리를 잡게 되어서 3期生을 인계해 갔지
요. 그러다가 6·25를 만났습니다.

○ 司 會 다음은 李東根先生님께서 弟
子養成會 시작하실 때 애기와 敎育을 하
실 때의 애로사항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
지요.

○ 李東根 처음에 나도 學院을 만들 생각
은 없었고 아까 말씀대로 發表에 그칠 정
도로 그냥 책을 냈는데 그 형편없는 書
籍이지만 그것이 일단 세상에 나간니까 個
別的으로 個人指導 받으러 오는 사람이 한
사람 두사람 찾아 오는데 敎習場이 있어
야지요. 그래서 窮餘之策으로 내 장소는
없고 해서 乙支路4街에 東西洋敎專門學院
이라고 있었어요. 그 洋敎專門學院의 院
長을 찾아가서 이것이 앞으로 유망한 분
야이니까 敎室하나 割愛해 달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院長이 그러마 그러면 受講生이
들어 오느냐 아! 앞으로 많이 올 것이라
고 해서 그러면은 좋습니다. 해가지고 洋
敎學院敎室하나 빌려 가지고 認可를 못 말
았으니 東西洋敎學院速記部라고 해가지고
모집광고를 냈어요.

그러니 學生이 몇 오겠어요? 차라리 가
만 있으면 個人敎授 自講해 오는 그 數字
가 도리어 나올 걸 그랬어요. 그것 괜히

廣告해 가지고.....

(웃음)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년센스」를 벌렸
지요.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몇個月 지나니
까 數字가 쌓여요. 그때야 다른 兼職이 없
고 거기에 全力投球할 때니까 몇달 지나
니까 몇십명이 잠깐 붙음디다. 이래가지
고 역시 專門의인 장소가 있어야 되겠
다 우선 간판도 洋敎學院速記部라는 것
은 言語道斷이니까 이것 하여튼 速記學院
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 社會部長
으로 계시던 李允榮씨가 博愛院이라고 지
금의 養老院 慈善事業을 하고 계셨는데 그
博愛院所屬의 建物이 乙支路 4街에 있었
는데 그것이 교섭이 되어가지고 그 建物
을 얻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잘라 나간 것이 乙支路
4街이지요. 잘라가면서 이름을 東邦速記
學院이라고 改稱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에 이미 벌써 學
院界에서는 내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
때 朴寅泰씨가 乙支路 5街에 있었고 金天
漢씨가 3街에 있었고 그 사이에 내가 4街
에 파고 들어간 것이예요. 張基泰씨가 鍾
路 3街에서 했고 그때 姜生생님이 安岩
洞에서 제일 멀리에서 했고 그리고 돌아
간 朴松씨가 南大門에 자리 잡았고 그때가
참 速記界의 全盛時代였어요. 나는 듣기
를 전부터 마룻방 아니면 다다미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벗어나야 되겠다 해
서 乙支路 4街에다가 2층 建物인데 그때
로서는 참 最新施設이지요. 하여간 신발
신고 올라가게 하고 책상도 새로 갖지요.

이렇게 해 가지고 나가는데 중간에 말

못할 苦衷이 많았지요. 제일 늦게 나오고 또 연락은 안됐지 學生들이 자주 登요해 가지고 뭐 東邦速記 안된답니다 여기 갔다 오고 저기 갔다 오고 여기 저기에서 하여간 별말이 다 들려요. 그것을 전부 默殺하고 묵묵히 밀고 나가니까 100餘名 돼요, 그래서 事變前까지 평균 100餘名이 상 거느리고 있었어요.

○ 張基泰 그때 우리는 1년에 한번 밖에 募集을 안했어요.

○ 李東根 그래서 우리 同友끼리 交流가 된 것이예요. 金天漢씨가 거리적으로 가까우니까 제일 먼저 찾아와서 人事를 나누었고 그 다음에 朴寅泰씨가 찾아 왔고 그래서 乙支路통은 우리 셋이 가깝게 지내면서 비교적 雜音없이 잘해 갔어요.

그러다가 事變때 우리 速記界의 決定 打였지요. 그때 한참 「부드」가 조성이 되었는데 찬물을 끼얹어가지고 그때 우리가 사실상 全滅되었읍니다. 그래도 참 용케도 우리가 事變後에 金天漢씨하고 나하고 그래도 避難통에 가서 한번 再起를 했읍니다. 그래서 내가 大邱에서 다시 문을 열었고 金天漢씨가 釜山에서 다시 문을 열었읍니다. 그때 우리가 事變前에 상당히 가까이 지내서 金天漢씨가 大邱에 오면 으레히 나한테 찾아오고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자기도 하고 또 내가 釜山에 가면 金天漢씨 찾아가서 現況도 좀 들여다 보고 그래서 命脈이 끊기지 않고 살려 왔는데 收復後까지도 같이 高麗式이 왔는데 高麗가 조금 더 버티었으면 되었는데 아깝게도 途中下車해가지고 이제는 외롭게도 하나 밖에 없읍니다. 그래서 平常時 하는 얘기가 하여간 빨리 他法式에서도 무엇인가

나오기는 나와야겠어요. 그것은 욕심이 지만……

○ 姜駿遠 現實面에서 經營이 안되니까 할 수가 없어요.

○ 張基泰 그 市長도 그렇지요, 2代인가 3代인가 市長을 찾아가서 學院認可 좀 해주시오 그러니까 前例가 없다는 것입니다. 解放後 처음이니 前例가 있을 터이 있나요. 그런데 認可를 말아서 學生募集을 해라 그러고 認可는 가서 해달라고 하니까 前例가 없어서 뭐가 있어야 도장을 찍지 前例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나 도리어 들어와요. 아! 前例가 없을 수 밖에 더 있오. 이것이 創案한 것인데 어떻게 前例가 있어요. 당신네들이 적당히 해서 도장 찍어 주어야 할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때 推薦書를 받아 오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 사람 推薦書를 받아가지고 갔었지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創案한 것이고 學院을 내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推薦書를 받아 주고서 認可를 냈어요. 그 다음서 부터는 아마 수월하게 나왔을 것이예요.

○ 姜駿遠 그 다음에는 教科書를 添付해라 이것인데 나는 教科書는 없었읍니다. 目錄밖에 謄寫한 것이 없거든요. 이 目錄으로 代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認可를 냈어요.

○ 李東根 나는 認可는 그렇게 힘 안들이고 냈는데 그때 軍政時代이지요. 그때 文敎部長인 吳天錫博士의 推薦狀을 내가 얻었어요.

그러니 市에 가야 100%이지요. 異論이 있을 수 없지요.

○ 姜駿遠 내가 가니까 書式을 해오라고 꼭 주더군요, 이것이 12가지예요.

○ 司 會 그 다음에는 高麗法式的 養成 過程을 말씀해 주세요.

○ 金星漢 지금 활발치 못해서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하여튼 여기 계신 분보다 조금 뒤늦게 사실 養成도 착수가 되었고 한해 이대 좀 늦었어요.

여시 速記를 創案한 분들은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政治的으로 또 거짓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사람은 速記가 學術이 아니다 하고 얘기하지만 또 그렇다고 技術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技術도 아니고 學術도 아니고 무엇이나 이랬을 때 사실은 學術은 學術인데 學術을 研究하는 學者들은 돈을 모르고 政治를 모른다고 하듯이 이 速記創案者들도 보면 거의가 다 그래요.

지금 현재 까지도 그렇고 그래서 특별히 隘路事項이 있는 것은 政府의 뒷받침을 바라다든가 어떠한 巨富의 喜捨라든가 이런 것을 받지도 못하고 혼자 個人教授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어려운 難關을 무릅쓰면서 學館을 했고 또 6·25를 통해서 避難中에서도 그대로 避難地에서 했읍니다마는 그런데 6·25가 아까 全盛期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學院의 全盛期는 되었지만 速記士의 輩出 速記士의 活動全盛期는 사실상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學院의 全盛期가 되고 廣告가 되니까 軍部에서도 알게 되고 해서 各軍마다 速記士養成을 하고 또 速記現役士兵을 길러 내고 해서 大邱같은데 보면 高級副官學校에서 9個月過程으로 速記를 가르쳐서 軍法會議에서도 쓰게 된 이런 것이 있었어요. 이것이 그때 당시에 解放後에 速記學院을 하고 또 여러 廣告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口傳도 되고 宣傳도 되고 해서 역시 이제 軍이나 이

런 데에서 많이 알게 되었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아직까지 사실 우리나라에 速記가 무엇이나? 하는 것을 쓰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그저 略記式으로 빨리 쓰는 것이려니 생각하는 사람들이 相當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과거에는 더 말할 것이 없었지요. 그런 가운데 이 高麗法式에 있어서는 避難통이지만 불행중 다행이라고 할까 軍部에서 조금 와서 해봐 달라고 그래서 避難中에 가르쳤던 1期生들이 高級副官學校에 講師로 招聘이 되어서 한 서너분이 가서 軍人들 여러 백명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軍部速記가 많이普及되었는데 그 후에 9·28 收復이 되고 나서 그때는 本格的으로 제가 처음에는 西大門에다가 2層을 얻어서 그래도 제법 教室답게 꾸며서 해 보았고 역시 내집이 아니기 때문에 賃을 얻어서 하는 바람에 轉轉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西大門橋南洞에서 시작을 해서 저 三仙橋로 가서 한 1年쯤 있다가 亭洞으로 오고 또 거기서 1年쯤 있다가 貫鐵洞으로 옮기고 다닐 적에 상당히 宣傳도 하면서 通信教育도 地方으로 해서 校外生만 하더라도 通信教育을 받던 사람들이 한 20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通信教育을 받던 사람으로서 끝까지 한번 國會速記사까지 한 사람은 崔孝燮씨 그 분이 사실은 速記通信教育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本學院에서 다시 研究過程을 거치기는 했읍니다마는 그런 것도 있었고 여러해 하는 동안에 사실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것을 하면서 만데 職場을 갖게 되다 보니까 또 집에서는 말려요. 총각때는 마음놓고 좀 밀지머라도 했는데 결혼을 해서 살다보니까 당신

速記하고 결혼해서 일생을 보내지 왜 나하고 결혼을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할 수 없이 黃先生에게 인제를 해 주고 제가 速記를 좀 背信했다고 그럴까요 속기를 일체 안하고 그대로 敎職生活를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命脈이 끊어졌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나은 사람들이나 저도 언젠가 속기는 잊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금년봄에는 생각을 해서 어떠한 기회가 있으면 다시한번 學院을 開設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선 지난 5월부터 通信敎育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講義錄을 자세히 12권을 만들기로 계획을 해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9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프린트」로서 좋게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東邦速記學院에 가서 몇번 諮問도 하고 또 李선생하고 얘기도 좀 해 보았어요. 그렇게해서 서울 新聞에 廣告料는 꼭 10萬원 한달에 들어서 냈는데 들어온 것이 4萬원밖에 안들어와요. 그래서 돈을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다지 出血이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再起를 한번 해서 命脈을 유지하면서 말은 자꾸만 빨라지는데 速記法式에 대한 改良이 극히 어렵지 않느냐! 옛날에는 10分 3,000字 얘기했지만 요즈음 경우에 따라서는 10分 동안에 4,000字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따라잡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도 하지만 그 좋은 것이 나오지 않아요. 姜선생님께서 사실 老齡인데 지금도 끊임없이 學術적인 것 速記 「타이프」에 관계되는 것을 꾸준히 연구하시는 것을 보면 사실 탄복을 합니다. 그런 분에게 어떤 篤志家라도 있어서 참 면안히 연구나 한번 해보시우 하는 이런 篤志家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學術研究하

는 사람은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民族賞도 없고 3·1文化賞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創案者라고 하면 그 밖의 學問에 있어서는 小說 하나를 잘 써도 賞을 주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좀 個人의 힘으로는 안되고 종이 제머리 못깎는 식으로 宣傳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런 것이 契機가 되어서 協會가 근거지가 되어서 速記創案者들에 대한 의욕이란 게 또 앞으로의 速記文化暢達을 위해서 더욱더 연구할 여지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命脈은 그치지 않고 高麗式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速記文化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많지는 않지만 通信敎育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실지 學院을 한번 經營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상품도 市場이나 이런데에 業體가 여럿 있어야 서로 삽니다. 일론 생각하면 速記學院 하나 있을 때도 안되는데 두個 세個 있으면 더 안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速記學院이 여섯個 있었을 때 오히려 門前盛市를 이루어가지고 수백명씩 해서 다른 學院도 더 잘 되었거든요. 옛날에 정말 1百萬 2百萬 밖에 안되었었고 지금은 7百萬의 首都서울인데 될 것이란 말이에요. 하여간 지금도 여기에 좀 미쳐서 그런지 하여튼 速記는 떠날 수가 없어요. 자다가도 문득 생각이 나서 이런 것은 이렇게 써왔으면 좋겠다 지금도 자꾸 그것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몇가지 자꾸 改良하는 합니다. 우리가 學者라고 생각한다면 自負心을 가질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개인의 힘보다도 全會員이 뭉친 協

술에서 크게 어떠한 活動이 보여질때에 더 활발한 速記界가 내다 보여 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司 會 그 다음에는 解放이후 우리의 나라 發展度에 따라서 말하는 速度가 年年이 빨라집니다. 따라서 速記法式도 여기에 副應해서 그 속도에 따라 갈 수 있는 法式으로 改善해 나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各法式마다 좀더 속도를 올릴 수 있는 改善點에 대해서 創案者께서는 분틀계서 계속 연구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弟子들에게도 이런 방향으로 改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계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姜駿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남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라도 돈을 모아서 共同名義로써 學院을 내가지고 방만 나누어서 각각 자기式을 한 1年 같이 가르쳐봅시다. 그러면 다시 「불」이 일어 납니다. 방마다 다르니까 서로 경쟁도 되고 그 다음에 創案者들이 모이게 되니까 그때는 자기法式을 완전히 他創案者에게 소개하고 批評을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방식을 용감하게 採擇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金星滿 發言速度가 빨라짐에 따라 速記法式이 개량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一般 속기를 담당하는 實務者로서는 개별적으로 개량할지 모르지만 創案者와 같이 내가 꼭 어떻게 해서 후배를 養成하겠다는 責任意識 같은 것은 못 느낄 것이예요. 그래서 創案者로서 責任과 義務를 느끼고 꾸준히 改良해 가지고 지금 배우는 사람들이나 이미 배운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준다면가 이런 것이 있어

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모임만 하더라도 協會에서 갖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도 모였는데 앞으로 우리 協會가 速記界의 앞날을 摸索할 수 있는 모임을 자주 있게 하기를 바라고 다른 學門이나 「스포츠」는 先進國과의 相互交流와 과학적인 「메이타」에 의해서 모든 機能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 速記는 혼자서 머릿속에 연구를 하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他法式과의 경쟁이 타든가 長短點을 取捨選擇하는 것이 참 어렵어요. 그래서 姜先生님 말씀대로 各法式을 한 장소에서 가르치면서 정말 法式간에 흥금을 털어 놓고 얘기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더 좋은 새로운 法式으로서 나올 수도 있는 문제이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볼 만한 것인데 지금은 여러가지 財政적인 뒷받침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張基泰 내 경우를 얘기하지요. 아까 잠깐 速記界책을 보니까 創刊號가 70年 4월에 나왔던군요. 그 무렵인데 梨大에서 얘기를 해 왔는데 몇달 여유가 있었어요. 시간이 1週日에 5時間씩 學校에서 가르치는데 時間數로 따져보니까 實用速記를 그대로 가르쳐 가지고는 練習時間이 없으니까 도저히 안되겠고 이것은 더 좀 어떻게 速度가 나올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토는 같지만 名詞나 單語쓰는 것은 實用速記와 그 記號가 완전히 틀려요. 記號를 다시 配合를 해서 지금 그 애들 가르치는 것은 받침자가 한자한자 따로 되어 있어 간단하다는 記號는 다 집어 넣었지만 배우기가 좀 복잡하지요. 받침을 붙여가지고 「각」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고 「자」이라는 다른 자가 있어요. 예전에 逸波式에 變字가 있

는데 그 變字를 아주 최대한으로 확대했지요. 그래서 무반침자중에도 速度가 안나고 느리고 길다는 것은 잘라 버렸어요. 그것을 내가 學院을 가지고 지금 6個月만 가르치면 3級은 쓸 수 있어요. 오늘날까지 내가 많이 가르치지 않았지만 마음먹고 정성껏 붙잡고 가르친 사람 중에 안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 自信은 가지고 있는데 養成된 사람을 진출시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 司 會 다음은 協會運營에 있어 평소 느끼시는 점과 改善方向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東根 글세요. 速記術의普及이나 需要處開發에 協會로서 原動力이 되어 일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느끼는 것인데 실제 協會發足 당시에 우리가 기대를 많이 가졌어요. 한 덩어리로 뭉쳐가지고 일을 해보자 했는데 그 이후 상당한 時日이 經過되었는데도 速記講習이라든가 많은 일은 했지만 결국 速記界에서 볼 때 크게 開拓한 것은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協會에서 근본적으로 일을 하려면 活動에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外部에 나가서 活動하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速記人口數가 적다 해도 각자 나름대로 長點이 있지 않습니까? 適在適所 부서를 맡게 해서 活動할 수 있는 與件을 주어가지고 活動을 시킨다면 보다 밝은 速記界의 앞날이 期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司 會 協會로서 運營改善의 노력은 향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速記「타이프」에 대해서 研究를 많이 하고 계신 姜善生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姜駿遠 速記「타이프」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제가 手打를 좀 본격적으로 해 볼까 하다가 그만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美國雜誌에 나는 것보면 아무래도 그다음 하나를 뛰어넘는 方向이 하나 생길 것 같다 주로 美國과 日本인데 自動言語文字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電子學者들이 動員이 되어서 自動速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聲音學이라든가 「그래프」나오는 것도 圖書館에 가서 읽어보고 했는데 그것이 母音은 잘 나오는데 子音이 안 나옵니다. 그것을 子音이 나오게만 하면 世界共通文字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各國이 제각기 다른 文字를 쓰는데 그 글자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發明하면 世界의 世宗大王이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각기 다른 말을 쓰더라도 美國사람모양으로 「사인」만 하면 돼요. 다른 글자 쓸 것도 없어요. 國民學校學生도 자기나라 글자 배울 필요가 없는 이정도 되는 社會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手打「타이프」研究를 그만두자 하나 뛰어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이러한 觀念을 가지고 있어요.

○ 李東根 姜善生님도 실지로 많은 研究를 하셨지만 速記打字은 孔병우씨가 무척 신경을 썼습니다. 그양반 연구하면서 몇年 고생했어요. 그양반은 速記에 대한 것은 모르니까 저하고 여러번 만나서 제가 速記에 대한 자료를 주었고 打字은 자기의 專門이니까 하나 完成해 보자 해서 孔병우씨가 무척 애를 썼는데 결국은 拋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速記機械學의 으로 모르겠는데 이것이 하여간 힘든 모양입니다.

○ 張基泰 速記라는 것이 會議速記만 가

지고 한다면 물론 한장소에다가 고정시켜 놓고 하면 되지만 手動速記라는 것은 장소를 가리지 않아요. 群衆속에서도 하고 옆방에서도 하게 되고……참 그야말로 日本에서도 速記活用하는 것을 보면 대단해요.

○ 姜駿遠 최후로 速記가 남는 形態는 手筆速記와 自動速記 두가지 뿐일 것입니다. 그 중간은 다 없어집니다.

○ 張基泰 速記도 그렇지요. 우리가 말하는 것 그대로 비껴가지고 이것을 翻譯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예요. 결국은 머리로 받아서 要約을 해가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은 쓰고 필요치 않은 것은 빼고 이런 식으로 速記하는 것인데 手動式이 이렇게 보급이 안되었는데 여기다가 무슨 裝置를 해서 이것을 실제 쓸 機關이 어디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지요.

○ 司會 法院같은데 파고 들어가려면 그런 것이 開發이 되어야 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되고 요전에 協會에 法院立會書記들을 教育을 시켜달라고 해서 좀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단되었어요.

그러니까 速記「타이프」는 결국 開發이 어려운 것으로 매듭짓고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速記士法 制定의 可能性과 必要性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金星漢 사실 어떠한 司法書士나 公證會計士 그 밖에 公證人制度 이런데에서는 公證力을 가지고 그네들이 상당히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速記에 대한 것도 座談速記 또는 證言速記 어떤 경우에는 遺言速記를 했을 때 公信用을 부여하고 速記士들이 중도적인 입장을 걷는 身分保障 내지는 權益保障까지 해 주는 速記士法을 制定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에 速記事務所가 開設이 안되고 있어 어떠한 株主總會나 「세미나」 이런 것을 개인의 親分에 의해서 부탁을 받아 速記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記錄文化가 고도로 발달되었는데 速記事務所의 認可節次에 대해서도 막연한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速記士法을 制定함으로써 결국 速記가 普及 發展되는 데에 큰 역할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速記界의 앞으로의 進路—

○ 司會 速記士의 權威와 身分保障을 위해서 速記士法이 있었으면 좋겠는 가 말씀을 해 주셨는데 日本에서는 資料를 보니까 衆議院에서 通過되었다가 貴族院에서 任期가 끝나는 바람에 폐기되고 衆議院에 계속 繫留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國會法에 「速記法을 使用하여 會議錄을 作成한다」는 規定이 있을 뿐입니다.

다음은 速記界의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張基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速記는 國會速記士들의 動態가 母體가 되는데 國會를 토대로 해서 速記士들의 활약이, 公證力 信用 功績 이런 것은 社會에서 認定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社會에서 速記를 어떻게 받아들일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얘기하지만 一般社會에는 「그것 없어도 되는 方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學校에 나가보면 講義時間에 先生이 칠판에다가 筆記하는 것으로 時間을 消費합니다. 만약에 大學生들이 速記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된다면 칠판에다가 일일이 써 줄 필요도 없이 될텐데 이것이 우리 速記人들의 啓蒙을 가지고는 잘되지 않아요. 필요

하다고 認定은 하지만 이것을 배우는데 얼마만한 時間이 걸린다 하게 되면 벌써 안 하려고 그러니까 速記를 創案한 사람들이 老境에 들었고 하지만 이왕이 길을 잡은 사람들이니까 研究를 더해서 좀더 나은 速記로 改良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도 지금 槩大에서 가르치는 것을 볼때에 速記가 改良이 되어서 速度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서울式도 그렇고 高麗式도 그러한 素志가 다 있을 것입니다.

○ 姜駿遠 지금은 한 1年 배워야 3,000字 정도 나온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速記能力인데 최소한도 이것을 6個月로 줄이는 作戰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우는 사람들은 마음이 조급합니다. 1年씩이나 어떻게 배우느냐 으레히 그래요; 우리 자신들의 勞力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 李東根 姜선생님 말씀에 同感이예요. 우리가 보급하는데 가장 難點이 배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우선 速記를 創案한 사람들이 過去에 1年하던 것을 6個月이면 6個月로 이러한 새로운 目標로 해서 다시 한번 創案當時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새出發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協會에서도 더욱 活動에 積極性을 더어가지고 內的으로 충실히 할 것은 충실히 하면서 外的으로 活動이 필요한 것은 補完해서 해나가면 速記界가 좀 더 發展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 司 會 다음은 金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시죠.

○ 金星漢 저기에 異見이 있을 수는 없

는데 우선 첫째 문제가 進路開拓의 制限性에서 脫皮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절대적인 문제이고 우리가 速記라는 것은 窮極의 목적이 역시 직업으로서 職業速記까지 할 수 있는 能力者가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취미로 배운다 또는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배운다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은 完全速記士가 되지 못하는 것이니까 論外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進路開拓制限에 대한 脫皮를 商法이라든가 法院組織法이라든가 이런 法の改正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겠고

또 하나는 全體國民이 速記라고 하는 것이 이렇다 하는 底邊擴大를 통해서 예를 들자면 적어도 지금 현재 文敎部의 敎課過程에 의해서 中學校나 高等學校는 1週日に 3時間 정도의 特別活動은 취미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언제든지 매일해도 좋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速記特別活動을 하려고 하더라도 講師가 없어서 못하는 學校도 있고 그래요. 다만 南相天씨가 사실 혼자 韓國速記協會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하지만 상당히 活動은 많이 해요. 그래서 各級學校에 文敎部檢認定으로 해서 敎科書까지도 나오고 各級學校에 公文을 내고 教育委員會를 通해가지고 여름放學이나 겨울放學때 한달 동안 先生들에게 1年 내지 2年정도 1週日に 4, 5時間 가르칠 정도로 講習을 시키고 있어요. 실지로는 速記라는 것을 잘르는 사람을 放學 때 講習을 시켜서 모 速記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해가지고 商科學校에서 주로 商業先生들이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敎職을 갖고 있으니 教育委員會에 社團法人 大韓速記協會라는 것도 있다 하던 글씨 그것은 몰라

도 個人的으로 이렇게 하나씩 자기네들은 협조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商業學校 선생들이 放學 한달동안 120時間 또는 240時間을 講習받게 되면 上級資格을 取得하는데 조건을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準教師가 速記講習반 받게 되면 2級正教師가 되고 그 2級正教師가 速記講習을 받으면 商科先生으로서 1級正教師가 될 수 있는 資格을 줍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그저 따라서 배웁니다. 그 사람이 가서 特活時間에 가르치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文敎部에서 施行하는 實業高等學校 技能檢定이라고 하는 것이 1년에 한번씩 있어요. 바로 지난 10월에 지나갔는데 거기에 제가 審査官으로 招聘되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試驗問題나오는 것을 보면 理論的으로 나오는데 速記는 몇으로 써야 되느냐. 또 速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것이 나와요. 그것을 보니까 南相天씨의 책에서 나오는 것이 速記의 原理인 줄만 알고 그렇게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안되는 것이다 이것가지고 1級 2級 3級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해서 안되는 것이고 실지 速記라는 것은 實務가 重要한데 이것은 法式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더니 그때 文敎部에서 나온 사람 教育委員會에서 나온 사람이 아! 速記가 그런 것이냐고 여러가지 있는 것이냐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學校에 있기 때문에 가끔 보게 되면 서울시 技能檢定에 速記分野의 문제는 제가 出題를 했어요. 1級에서 부터 꼭 出題를 했어요. 그것은 文敎部 指定에 의해서 數字 1,200字 1,600字 1,800字 3,200字까지 불러 주고 5分동안 쓰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各級學校에 있어서 어느정도 速記協會가 主管이 되어서 한다면 希望學校가 몇學校가 있으면 1週日에 1時間 또는 2時間이라도 가르쳐서 이렇다 하는 것을 알고 더 배우기를 希望하는 學生이 있으면 速記協會가 推薦하는 어떤 學院에 다닐 수 있게 해 주면 이것이 學術도 되고 技術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學校當局에서도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各級學校의 特活로서 速記를 普及시키는 것도 摸索을 하면 不可能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實業科教師에 대해 短期速記講習을 시키는 것도 우리 協會에서 主管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때에도 힘을 쓰면 速記人口의 底邊擴大가 좀더 활발히 이루어 지리라 생각합니다.

○ 司 會 저희 協會에서도 各學校에 편지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의뢰가 오는 때가 있어서 지금 나가서 講習을 하고 있는 學校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 創案者 선생님께서 速記와 더불어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哀歎 그리고 韓國速記界의 위치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진지하게 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韓國速記界의 歷史를 파헤치고 앞으로 協會의 速記文化普及에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長時間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座談會를 마치겠습니다.

英語變異音이 英文速記士에 미치는 影響

— 國際會議를 中心으로 —

盧 英 民

一. 緒 論

1. 研究의 動機와 目的
2. 研究의 方法 및 資料
3. 先行研究

1. 研究의 動機와 目的

日益 發展의 度를 더해 가고 있는 世界의 樣相은 世界 속으로의 韓國의 發展을 加速化하고 國力의 急進의인 發展을 強要하고 있다. 이를 爲한 努力은 各方面에서 다가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世界舞臺로의 進出을 뒷받침 해주는 原動力의 役割을 하는 것이 外國語의 힘이 아닐수 없다고 생각된다.

오늘날 우리 나라와 같은 發展途上國家에 있어서는 外國語, 特히 英語의 教育問題는, 至大한 關心事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世界속으로의 發展을 加速化 시켜줄 수 있는 緊要한 問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緊要한 關心事인 英語教育의 直接的인 목표는 학습자에게 英語를 理解시키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학습자에게 英語를 理解하고 使用하는 능력을 發展시키려하는 基本的으로 그 言



語의 lexical items (單語) 正確히는 (morpheme) 및 이들 lexical items의 羅列順序를 規制하는 諸規則 卽 그 言語의 統辭的 規制(Syntactic rules)를 알고 있어야 하며 羅列된 一連의 形態素들의 實現

을 위하여 音聲器管이 만들어 내는 acoustic signale 卽 그 말의 發音을 正確히 理解하고 구사할 수 있는 能力이 있어야 한다.

言語使用能力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基本的이고 必須不

可缺한 知識이나 能力만으로서는 充分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特히 구어 言語의 경우 形態素 혹은 어휘은 文中에서 단독으로 使用될 때와 같이 發聲되지 않기 때문이다. 特히 英語와 같은 stress-timed 言語의 경우에는 연결된 발화체(utterance) 中에서 同一音이라고 할지라도 強勢의 程度에 따라 各各 달리 發聲되기 때문에 文中에서 音의 變異現象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註: 이러한 文中에서의 音의 變異現象 역시 native speaker 文法 지식의 一部를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어느 使用의 측면에 關係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文法外的인 現象으로 봄)

이러한 變異現象에도 불구하고 native

speaker들이 의사소통에 지장을 받지 않는 것은 어떤 말, 單語, 또는 음을 前後한 linguistic 및 Situational context (以下 Situational context라고 부름), speaker의 表現이나 gesture 社會 및 文化的 環境에 대한 理解가 있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Situational context는 우리가 듣는 음 또는 單語를 잘못 알아들었을 경우에도 Situational context에 비추어 連結되지 않는 빈 部分을 메꾸어 뜻을 알아차릴 수가 있다.

Situational context가 加외의 剩餘의인 信號(Redundancy)를 提供하기 때문이다. 言語에 있어서의 Redundancy는 音韻部面에도 있고 統辭部面에도 있고 또는 때로 이 兩部面에 걸쳐 있어서 相互補強作業을 하여 意味의 傳達를 容易하게 하여 주고 있다. 예를 들면 英語에서 Yes나 No의 對答을 요하는 疑問文에서 "Is she a nurse now?"와 같은 文章에서 뒤에 가서 Pitch가 올라가는 音韻上的 特徵과 is가 she의 앞에 나와 있다는 統辭的인 特徵은 다같이 이 文章이 疑問文이라는 뜻을 나타내주고 있어서 Redundancy가 兩部面에 걸쳐서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 경우에 있어서 바로 이 Redundancy로 말미암아 이 文章의 첫 單語를 잘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文章의 뜻을 짐작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머리가 處理할 수 있는 一連의 음의 連續에 나타나는 information의 量이 制限되어 있다는 事實을 考慮할 때에 이러한 Redundancy가 뜻의 傳達에 있어서 해주는 役割의 重要性은 참으로 크다고 할 수 있겠다.

Wilga M. Rivers는 C. Shannon과 W. Weaver의 資料를 引用하여 『英語에는 約

50%의 Redundancy가 있을 것이라고 推算하면서 Redundancy의 重要性에 關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In order to manageable proportions the amount of information in any one sound sequence each language has developed a certain amount of redundancy. It has been estimated, for instance, that the English language is fifty per cent redundant, the human organism could not absorb information at the rate at which is would be emitted in normal speech

(註: Wilga M. Rivers,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9, pp. 137~138)

그리고 또 Charles F. Hockett는 모든 人間의 言語는 音韻部面에서 따질 때 거의 50%의 Redundancy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In every human language redundancy, measured in phonological terms, hovers near 50 per cent. The notion is that if redundancy tends to increase much above this figure, communication becomes inefficient and people speak faster or more sloppily, while decrease much below the figure leads to misunderstanding, and people slow down or articulate more clearly

(註: Charles F. Hockett "The problem of Universals in language" *Universal of Language* ed. Joseph H. Greenburg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1968) p. 24.

이러한 Redundancy는 우리의 speech recognition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事實이지만 때로는 그 言語의 Non-native Speaker에게는 도리어 어려움을 招來하는

수도 있다. native speaker끼리의對話에서 listener는 相對方의 말을, 單語 하나하나를 分明하게 듣지 않을 수가 있고 또한 反對로 Speaker도 文脈을 믿고 自己말의 單語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지 않고 말을 하는 수도 있다. 이처럼 Context를 믿고 卽 Redundancy가 있음을 믿고 Native Speaker가 어떤 單語를 不分明하게 發音하는 경우 그 言語의 Non-native Speaker로서는 경우에 따라서 그 말의 理解가 困難해지는 수가 있는 것이다. Liberman은 이에 關係 또 하나의 興味로운 實驗 結果를 말하고 있다.

그에 依하면 어떤 Speaker는 異常한 Speech에서 한 單語가 그것이 나타내는 文脈에서 推測할 수 있는 性質의 單語라고 생각되면 그 單語를 分明하게 發音하는 것을 疎忽히 여기는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 實驗에서 그는 "A stitch in time saves nine"이라는 文章內의 單語 그것만을 따로 떼어 (錄音된 것을) 듣게 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경우는 實驗回數의 50% 밖에 안 됐으나 "The number that you will hear is 'nine'"이라는 文章內의 "nine"은 文脈없이 그것만을 듣게 했을 때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경우는 90%나 되었다는 것이다.

첫째, 文章內의 "nine"은 거의 Redundancy하다고 볼 수 있는 存在이어서 Speaker는 그것을 조심해서 發音치 않았다는 것이다. (註: Liberman op. cit. p. 164.)

따라서 前者의 文章과 같은 경우에 그 俗談을 모르는 non-native speaker에게는 오히려 그 單語의 recognition이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大部分의 경우에 Redundancy 내지는 이것을 提

供해 주는 Situational context는 理解를 돕는데 重要한 役割을 해 주는 것은 틀림없는 事實이나 non-native speaker에게는 오히려 Listening Comprehension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주는 部分이기도 하다. 本稿에서는 筆者가 過去 1968年 부터 1975年 9月까지의 各種國際會議에 參席하여 會議時에 Listening을 함에 있어서 곤란을 받았던 部分과 現場(大學校)에서 多年間 學生들을 직접 지도하는데에 있어서 學生들의 Listening이 가장 잘 안되는 部分中에서 특히 그 빈도가 가장 컸다고 생각된 連音에 依한 變異現象을 重點의으로 취급하였다.

그리고 英語의 變異現象은 音素의 段階(allophonic level)에서 일어난 뿐만 아니라 類音의 段階(phonemic level)에서도 일어나고 있으나 類音段階의 變異音은 종래 音韻論의 主觀心分野로서 널리 論議된 것이기 때문에 本稿에서는 꼭 必要한 경우가 아니면 論議의 對象에서 제외 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항상 單音별로 말하지 않고 連音으로서 말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連音變異現象에 對한 研究는 各 單語에 對한 音韻構造的 側面의 研究 못지않게 必要하고 重要한 일인 것이다.

특히 筆者가 本 研究를 시작하게 된 重要한 동기는 筆者가 英語學徒인 同時에 英語速記士인 故로 많은 國際會議에 參席하여 各國代表들의 發言을 速記文字로 記錄을 하여 그것을 다시 英語 原文으로 Transcription을 할 때에 上記 連音部分에서 Listening Comprehension이 잘못되어 많은 오류를 범한 實例가 多數있었던 바 이 連音部分에 對한 研究가 英語學徒뿐만이

아니라 國際무대로의 進出에 있어서도 그 비중이 자못 크다고 할 수 있겠다.

native speaker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對話물할 때에 連音으로 하는 것이 의사소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을 쉽게 또 편하게 하기 위해서 連音으로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는 것이 훨씬 時間的

으로, 경제적으로 절약이 되겠으나 non-native person들에게는 오히려 Listening Comprehension을 함에 있어서 큰 困難을 야기시켜주고 있다는 事實을 筆者의 多年間의 國際會議 경험에서 뼈저리게 느껴온 바이다. 《次號계속》

제 9 회 ^{국어}速記士資格檢定試驗

日 時 : 1975. 11. 2

場 所 : 國會速記士養成所

— 合格者名單 —

國語速記

- 3 級 김춘원 절성인 김주성 강진남 (計 4 名)
4 級 박경석 박명옥 윤희억 김용서 박명희 이연희 박영수 (計 7 名)
5 級 이정애 정문수 김기선 (計 3 名)

英語速記

- 4 級 권경희 (計 1 名)
6 級 오혜숙 우남희 (計 2 名)

觀 覽 席

○ 지난 10월 18일 파랑계 맑은 가을하늘아래 벌판같이
광량한 여의도 운동장에서 速記課內 老壯 對 少壯 別칭
은 既婚者 對 未婚者 제 2회 異色축구시합이 있었다. 急

造된 「골」대 앞에 「콜라」상자와 막걸리통이 도착하자 鄭源道 速記擔當官의 잠은 격
려사에 이어 「게임」이 시작되었다.

○ 경기는 老壯의 기술과 少壯의 패기가 맞 부딪쳐 前半에는 老壯이 우세하게
이끌었으나 後半에 와서 老壯側에서 언이어 두 선수나 다리에 경련이 나자 戰力이
흐트러졌다. 이틈에 少壯側은 총공격을 가해 競技終了 10餘分을 남기고 李承哲선
수가 「터닝슛」을 성공시켜 大勢를 결정지었다.

○ 이날 課內 아가씨들은 既婚은 未婚「팀」을 既婚은 未婚「팀」을 응원하기로 약
정이 되었다는데 미혼팀에서 결정적 순간을 놓칠때 Miss들이 歡聲하는 것을 보면
草綠은 同色인 모양... 경기가 끝나자 議事堂넘어 붉게 타오르는 저녁놀을 바라
보며 둘러앉아 막걸리 「파티」를 벌였다. <良>



어느날의 記憶祭

金 仙 玉

그녀석은 항상 바보같은 몸짓에다 바보같은 웃음으로 나를 웃기곤 했다.

畫家가 되고 싶어 했던 그가 굳이 無理해 가면서까지 法學徒가 된 것은 그네 아버지의 꿈의 實現을 위한 孝行心이었다기 보다는 역시 그가 바보였기 때문이라는 나의 主張이 그럴듯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녀석은 때로는 썩좋은 솜씨의 水彩畫를 들들 말아가지고 건네 주며 부끄러워 하기도 했는데, 한귀릉이엔 詩 한 句節쯤 적혀 있기도 했었다. 또한 그는 雪岳에서, 俗離에서, 또는 東海에서 南海에서……혹은 이름도 記憶할 수 없는 어느 조그만 簡易驛에서 장난끼담은 葉書를 가끔씩 부쳐오곤 해서 그의 행적은 더듬기조차 어려웠다. 때로는 걸간에서 工夫를 한다고 한동안 잠잠하기가 일쑤였지만 얼마후에는 쉼없는 얼굴로 나타나기도 했다.

나는 그 조깨한 녀석이 불쌍하기도 했고 번번이 (아니 당연히) 高試에서 落榜만 해버리는 녀석이 惻隱하기도 했다. 아니 어쩌면 나도 조금은 法官의 마누라가 되어 불 꿈을 한때 꾸어 보지 않은 바는 아니지만 녀석은 틀림없이 落榜만을 익숙하게 했었던 將來性없는 미련한 소꿉동무였다.

만은 나도 꽤나 미련한 터이지만 그녀

석은 왜그리 미련한 짓만 골라서 했었는지 모르겠다.

아주 오래전의 일이지만 (여전히 철었던 녀석의 高等學校時節의 얘기이다) 그는 數學時間이 싫어서 밴드部에 加入을 했노라고 했다. 밴드部에 加入하면 數學試驗의 落第點에 學校의 恩顧가 내려진다는 先輩部員의 꾀임에 그만 솔깃해서 加入을 했다가 그나마 심벌즈의 요란한 소리만을 내다가 脫退의 膳物로 매만 맞고 나왔다는 그였다.

흙은 염소를 聯想케 하던 녀석이 심벌즈를 두드리던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나온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그는 우리를 (나를 포함한 H.S.K등) 보곤 불쌍한 어린 양이라며 알밤을 먹이기 일쑤였으며 우리는 또한 그를 처량한 흙은 염소라 불렀다.

그는 自稱 쇼망처럼 마르고 길다란 손을 가졌었는데 어느해 겨울인가 그의 家財第1號라는 낡은 피아노 鍵盤을 두드리며 부르던 쇼망의 離別曲은 꾀이나 印象의 이었다. 그리고 기타를 치며 “해뜨는 집”을 흥내낼때면 진지한 表情이까지 했던 그.

어느날인가 나는 퇴근後 百貨店에서 쇼핑을 하고 歸家하려고 버스를 기다리다가 등을 치는 기척에 깜짝놀라 돌아섰더니 敎

世主라도 만난 듯한 얼굴로 여전히 바보 같은 웃음을 띤 녀석이 歡呼를 지르고 있었다. 커다란 소리로 萬歲를 덧붙이는 것이 아무래도 수상했는데, 아나니 다들까 잡아 끌며 골목길로 들어가 入口가 좁다랗게 생긴 우중충한 낙지집으로 안내를 했는데 거기엔 그의 몇몇 친구녀석들이 人質(?)로 잡혀 있고 녀석은 서로의 주머니를 민고 마시고 먹은 뒤 計算書의 資金調達을 위해 십자가를 걸머지고 그 커다란 눈을 두리번거리며 舊面 내지는 知面 찾기에 苦心하던 차에 나를 만났다고 했다. 패섬하기 그지 없었으나 어쩔수 없이 비상금을 털어서 치루어 준후 나는 그들의 救世主가 되었다. 그들은 말하자면 大學卒業後 入隊를 앞둔 高等보편이었고 좋게 봐주면 高試準備生들이었는데 그들은 그들의 一齊落榜記念酒日이라고 했다.

그후로 녀석의 東으로 西으로의 放浪은 다시 시작되었지만……

어느해 겨울날 몹씨도 추웠던 내 생일에 불쑥 그는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조그만 花盆을 사들고 왔다. 다 잃어버린 仙人掌이었는데 그것은 그후 며칠도 못가서 죽어 버렸다. 나는 앙상한 그의 손이 매우 가없어 보였지만 바보처럼 이런질 사오느니 어쩌느니 하며 잃어버린 仙人掌에 대한 분풀이만 해 댔었다. 재미없게도 녀석은 화를 내지 않고 웃기만 했었다. 아마도 그의 顔面筋肉은 그저 웃는 表情밖에 지을 줄 모르던 癱瘓症勢를 머무지나 않았나 疑心했었는데 때때로 녀석은 人生의 虛無라느니 어쩌느니 하며 진저래 질때나 혹은 自身의 問題를 골똘히 생각하며 自虐이라도 할때면 그럴듯하게도 심각한 얼굴이 되기도 했으므로 나의 그러한 격정

은 사실 杞憂에 不遇했다.

녀석은 또 언젠가는 마치고 나의 깊숙한 곳에 자리한 虛無의 검새를 눈치채기라도 한듯 先手를 치며 자기는 破戒僧이 되기 위해 중이 되겠노라는 등의 엉뚱한 말을 하기도 했다.

그는 점점 철이 들면서 갈피잡을 수 없도록 彷徨하고 있었다. 어쩌면 內面으로 더 심한 彷徨을 일삼고 있던 나에게 그것은 무척 짜증나는 일이기도 했지만 나는 녀석의 동생인 H양과 함께 끈질기게 그의 彷徨과 建康을 걱정해 주기도 했었다. 그는 建康맞으로 징집이 延期되었노라고 했다. 그토록 심한 彷徨을 일삼으면서도 그는 웃기길 잘했고 高試에 대한 執着과 미련을 버리자 못해서 늘 책보따리를 떠나지 않던 녀석에게 나는 머리가 나쁜탓일거라고 斷定을 했었고 그럴때 그는 신통한게도 肯定을 하는 눈치여서 이내 나는 그가 自虐을 할까봐 입바른 소리를 한 것을 뒤우치곤 했다.

그의 유창한 英語實力은 나의 氣를 죽이기엔 충분하였지만 녀석은 결코 傲慢하지 않았다.

얼마전 그는 다시 어더론가 가버린 후 간간이 藥信만을 부쳐 오곤 했다. 그무렵 나는 나 자신의 또다른 문제에 부딪치고 있었으므로 사실 그다지 關心을 두지 않았던 녀석의 行方이었다.

그는 雪岳에서 波瀾가 밀려오는 東海바다를 생각한다고 내가 愛誦하는 未堂님의 “바다”라는 詩를 깨알처럼 적어 보내온 적이 있었다. 그리곤 그후로 消息이 없었는데 물론 나는 별로 생각할 겨를이 없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론 그렇게 듄하다가 도 불쑥 나타나곤 하던 녀석의 放浪癖에

어느정도 익숙해 있었으므로 無心히 잊어 버린채 지나고 있었다.

지난번 나는 한동안 적조했었던 H양을 만났다. 그녀는 무척 덩덤한 表情으로 녀석의 죽음을 알렸다. 그것은 너무나 차분한 목소리였으므로 도대체가 믿어지지 않는 말이어서 하마트면 나는 농담으로 받아 넘길뻔 했는데 그러고 보니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은 떨렸던 것 같기도 하다.

水浴을 곧잘 하던 녀석이 하필이면 철지난 바다에서 (그래서 철不知일지도 몰라 그는……) 波濤에 휩쓸렸다는 사실이 小説에서나 읽은듯한 얘기였으나 어찌면 그것은 太陽이 뜨겁게 우리의 머리 위에서 이끌거리던 8월 어느날 雪岳에서 보내온 지금은 내 책상 어느 서랍엔가 부서 박힌 그 마지막 片紙와도 관련이 되듯한 事件이었는데도 모른다. 그렇지! 그것은 분명 豫告였음에 틀림이 없다.

오늘에서 나는 한번 읽고 던져버린 그 편지를 發見했다. 아직껏 그의 죽음이 實感나지 않았었는데……

「오기! (녀석은 나를 그렇게 불렀다) 여기는 雪岳. 산우에서 波濤치는 바다를 생각하는 나는 정말 네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한 바보인가 보다. 바다로 달려 가야지. 그래서 黎明을 앞둔 밤바다를 생각하며 네가 좋아한다는 未堂님의 “바다”나 적어 봐야겠다.……

귀기울여도 있는 것은 역시 바다와 나 뿐/밀려왔다 밀려가는 무수한 물결위에 무수한 밤이 往來하나/길은 잠시 어디에나 있고 길은 또한 아무때도 없다./

아! 반딧불만한 등불하나도 없이/울음에 젖은 얼굴을 온전한 어둠속에 숨기어 가지고……너는, /無言의 海心에 홀

로 타오르는/한낱 꽃같은 심장으로 침몰하라./

아! 스스로이 푸르른 정열에 넘쳐/둥그란 하늘을 이고 웅얼거리는 바다/바다의 깊이우에/비구멍뚫린 피리를 불고… 청년아./

애비를 잊어버려/에미를 잊어버려/형제와 친척과 동무들 잊어버려/마지막 네 제집을 잊어버려/

아라스카로 가라/아니 아라비아로 가라/아니 아메리카로 가라/아니 아프리카로 가라/아니 침몰하라 침몰하라 침몰하라./

오! 어지러운 심장의 무게위에/꽃잎처럼 흩날리는 머리칼을 달고/이리도 괴로운 나는 어찌 끝끝내/바다에 그득해야 하는가/

눈뜨라 사랑하는 눈을 뜨라……청년아 산 바다의 어느 동서남북으로도 밤과 피에 젖은 국토가 있다/

아라스카로 가라/아라비아로 가라/아메리카로 가라/아프리카로 가라./

그래 녀석은 갔다.

산다는 것이 그다지 즐겁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녀석은 좀더 살아 보아야 하는 건데……바보같은 녀석. 녀석은 그야말로 生의 한가운데를 살아 보지도 못한 채 어찌면 生의 언저리에서 베에로같은 몸짓으로 演技를 하다가는 虛無하게 갔다. 그것도 나라를 위해 武裝共匪와 싸우다가 장렬하게 戰死하였다거나 또는 이웃을 위해, 義理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그럴듯한 눈물겨운 얘기도 남겨 놓지 못하고 바보 다음에 波濤에 쓸려갔다.

바다 그 바다! 파도와 모래와 바람과 그런 記憶속의 바다……이번 겨울엔 嶺東

高速道路를 달려 겨울바다를 구경해야지. 그리고 8月的 바다를 그리며 녀석을 비웃어야지. 그리고 내 감기증세와도 흡사한 니힐의 헛기침일랑 波濤에 말끔히 씻어 버려야지. 또는 모래위에 수북히 쌓인 눈위를 걸어 봐야지.

사르비아빛갈같은 정열로 나의 生活을 기꺼이 아껴야지. 하이힐굽의 높이만큼만 위로 쳐다보며 살아가는 나의 生活을 사랑해야지. 그래야지 그래야지……녀석이 어디에선가 질투하고 싶도록 나는 열심해야지.

나는 문득 그가 波濤에 휩쓸리면서도 과연 바보같은 웃음을 짓고 있었을까를 생각하며, 또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생각하며 갔을까를 생각하며, 虛虛로운 나의 웃음을 웃을 수 밖에 없다.

人生이란 그네들의 입술사이로 풀풀날리는 담배연기와 같은 것일까?……이 가을에 나는 또다시 가을을 앓는 少女 처럼 感情의 浪費를 할까봐 지레 겁이 난다. 가을은 벌써 이만큼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는데…….

速 記 料 金 案 內

구 분	단 위	속 기 료	비 고
회의 및 강연	1 시 간	20,000 원	주주총회
좌 답 회	"	23,000 원	세미나 등
재 판 속 기	"	25,000 원	
방 송 속 기	"	23,000 원	
녹 음 재 생	"	25,000 원	
구 술	"	15,000 원	저술, 비서속기등
외 국 어	"	50,000 원	영어, 일어

- 단, 1. 요지작성료는 속기료 외에 매시간당 10,000 원씩 가산함.
 2. 긴급번역료는 속기료 외에 매시간당 10,000 원씩 가산함.
 3. 1시간 미만의 기록시간은 1시간으로 계산함.

위 와 같 이 결 정 시 행 함.

1975년 7월 1일

사단 법인 대 한 속 기 협 회

用語解説(9)

研究委員會

○테탕트(détente): 國際關係 등의 緊張緩和

○갤럽 輿論調査所: 정식 명칭은 American Institute of public Opinions.

美國의 統計學者 조지 갤럽 博士(G. H. Gallop 1901~)가 1935년 프린스턴 大學內에 設置한 輿論調査機關. 現在 맨허턴, 로스앤젤스, 프린스턴에 事務所를 두고 1,200名의 調査員을 두어 美國內 126個 新聞社와 海外 數십個國에 資料를 보내고 있는 權威 있는 機關이다.

○메르데카 컵: 1958年 말레이시아의 라만首相이 寄贈한 \$4,000의 純金の 優勝盃. 메르데카 컵 爭奪蹴球大會가 58年以來每年 열리고 있다. (Merdeka란 馬來語로 獨立이란 뜻).

○딜럭스(Deluxe): 美國語가 되어버린 프랑스語 Edition deluxe하던 豪華版이란 뜻이다.

○殘地收用: 土地收用に 있어서의 擴張收用の 경우 土地의 一部를 收用함으로써 因하여 殘地를 從來 利用하고 있던 目的에 계속 供用함이 현저하게 困難하게 된 때에 그 土地의 所有者는 그 土地 全部의 收用을 請求할 수 있다.

○彈力關稅制: 1969年 4月 2日부터 一部輸入品에 대해 우리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制度다. 商品時勢를 調整하기 위해 輸入品의 關稅率에 대한 自由裁量(引上, 引

下의 一定限度까지의 幅)을 政府에 부여하여 國內産業을 保護하는데 그 目的이 있으나 消費者에게 不利하게 作用할 수도 있다.

○페트로 파우어: 아랍 산유국들이 石油를 政治武器化한 以後에 새로 생긴 用語. 石油값 引上에서 오는 막대한 財力과 相對的으로 強化된 政治的 國際的 地位를 말한다.

○IRA (Irish Republican Army): 共和國軍이라고 하여 英國에서 獨立한 에이레共和國과 英國國의 一部인 北아일랜드와의 統一에 의한 完全獨立을 指向하는 北아일랜드의 非合法的 軍事組織이다.

○컨소티엄(Consortium): 어느 한 國家에 대한 資金援助 또는 産業資金의 供與를 目的으로 하는 國際的 借款團을 말한다. 銀行借供供與에 參與한 國際銀行은 中東產油國의 主要한 預金去來銀行이며 世界三大銀行인 BOA, FNCEB, CMB 등 幹事銀行을 포함하여 美國系 16個 캐나다系 3個 多國籍銀行 5個 프랑스系 1個 오스트레일리아系 1個等 총 26個 銀行이다.

○리마 선언(Lima declaration): 1971年 10月 페루의 首都 리마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95個 개발도상국들이 모임을 갖고 빈곤과 풍요의 무한한 공존은 이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견제 아래 채택한 선언을 지칭한다.

○유로 달러(Euro Dollar): 英國,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의 銀行이나 會社가 가지고 있는 달러 資金을 말하며 주로 런던 金融市場을 經由하여 다른 유럽各國에 預金の 형태로 短期投資되는 것을 가리킨다.

會 務 日 誌

75 7. 13 第63次 理事會.

第17回(夏季) 放學講習實施에 관한 討議

7. 28~8. 20 第17回(夏季)放學講習開催

講義法式: 國語 東邦

英語 Greeg

講義場所: 東邦速記學院

受講人員: 國語 184名

英語 90名

計 274名

7. 29 速記通信講義申請 1件

高麗速記通信教育會로 紹介

8. 6 速記時報(東京速記士會) No 3, 4 2部接受

8. 11 日本の速記 7月號 1部 接受.

感謝狀(郵便葉書) 1件接受(國際大學圖書館長, 速記界 15號 郵送받고)

8. 30 서울市立婦女事業館速記講義終講((1975. 3. 6~75. 8. 30)

10. 15 第64次 理事會

第16號 會誌發刊에 대하여 論議, 第27次 資格審査委員會

第9回 技能檢定에 관한 討議

10. 17 速記界編輯委員會開催

11. 2 第9回技能檢定試驗實施

場 所: 國會速記士養成所

受驗人員: 國語 73名

英語 9名

計 82名

11. 6 KBS 라디오 “異色職業對談” 프로에 金永春 研究委員長 出演

11. 13 速記創案者招請座談會

(張基泰, 姜駿遠, 李東根, 金星漢)

12. 6 昌德女高 速記講義 75學年度 終講

編輯後記

이번 號에는 特別企劃으로 速記創案者를 모시고 哀歎鬱린 귀한 말씀을 들어 보았다. 한국속거계의 胎動過程을 證言한 이 座談에서 우리 후배들은 創案者선생님들의 刻苦어린 노력을 재삼 認識하는 동시에 健安을 비는 마음 간절하다.

75年을 보내면서 速記界 하나를 더 내놓는다. 理事長님의 奮勵로 또 이 책을 펴들고 흐뭇해할 會員 諸位의 모습을 상상하며 會議에 꽃기면서 원고를 쟁겼다.

새해에도 速記界에 보람찬 한해가 될 것과 會員諸位의 健勝을 祈願한다.

— 良 —

速 記 界

<第16號>

1975年 12月 25日 發行

發行人	金	龍	泰
編輯人	金	允	洙

社團 法人 大韓速記協會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汝矣島洞 1番地

Tel (47)3341 (47) 3371

